

흥미진진 장흥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장흥군
Jangheung County

2021 장흥살이 행복 수기

살아보니까
장흥이 최고여라



철쭉제

물축제

보림사

역세계

2021 장흥살이 행복 수기

살아보니까
장흥이 최고여라

우리의 기억을, 꿈을 이야기하다

살아보게
장흥이 최고여라





Contents

발간사/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이 살아본게 최고여라~/ 정종순 · 6

축간사/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 유상호 · 8

심사평/ 우리의 기억을, 꿈을 이야기하다 / 백수인 · 14

당선소감/ 이웃과 융화하고 소통하는 삶 / 엄승은 · 17

대상

엄승은 장흥이 겁나게 조아부요 · 19

최우수상

조영례 장흥에서 30년 살아본게 “자응사람 다 되부러쏘!!” · 41

최현정 아이들에게 찾아 온 선물, 장흥 · 55

양정임 인생의 끝자락에서 찾은 행복 · 73

우수상

함윤미 살아본게~ 내 마음의 정원! 장흥이 최고여라! · 85

황인화 일하며 배우며 사랑하며 · 99

강윤희 어머니 같은 장흥에서 엄마로 사는 행복 · 109

윤순정 장흥에서 잘 살아보드랑께~잉 · 117

윤여미 오메 내 강아지! · 125

김여진 쌍콩이 아가씨에서 장흥댁으로 거듭나기 · 133

장려상

김미선 정감이 느껴지는 장흥살이 · 141

위필수 고향에서 얻은 건강, 행복 · 151

김건일 장흥, 둘이서 행복 · 159

이소영 장흥? 장흥!! · 169

위삼석 내고장 장흥(長興)이 최고당께요~~ · 179

이진영 시골은 밥이 짜다 · 189

송지연 새내기 정착민의 씩씩한 장흥생활 · 209

박미순 장흥의 사계절 · 215

박수정 “아가 애기 분유값해라잉” · 223

김영금 장흥에 살아보니 항상 감사합니다 · 231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이 살아본게 최고여라~



정종순 장흥군수

안녕하십니까! 장흥군수 정종순입니다.

먼저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2021 장흥살이 행복 수기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상을 축하합니다.

장흥군은 우리나라 광화문을 기점으로 정남쪽에 위치해 육지와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어 살기 좋고 풍요로우며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난 2008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학기행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큼 많은 문학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학이 살아 숨쉬는 곳, 문학 자원이 풍부한 고을입니다.

‘문학기행 관광특구’인 우리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장흥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수기를 공모하고, 당선작을 모아 수기집을 발간

하고 있습니다.

<2021 장흥살이 행복 수기 공모>는 장흥에 살면서 겪는 행복한 이야기로 결혼, 다자녀, 다세대 가정의 행복하고 진솔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 청년 성공 창업, 일자리, 귀농·귀촌 정착 사례를 주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작 한 편 한 편에는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의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잘 표현되어 있고, 장흥에서 살아가는 행복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어려웠던 순간들, 장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으로 장흥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수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번 수상 작품들이 장흥에서의 행복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장흥에 대한 도시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수상 작품들을 통해 장흥을 알고 싶고, 장흥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결혼장려금지원, 전입자 농산물지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공모에 참여하여 주신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장 유상호입니다.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다고 하여 수기공모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새 이웃이 이사를 오면 맨 먼저 “어떻게 장흥으로 오게 되셨나요?”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쯤 지나면 “장흥 살기 어때요?”라고 물었습니다. 혹여나 장흥을 안 좋게 말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답을

한테 모아 이렇게 책으로 만나게 되다니 군의회 의장으로서 좋은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흥에서 나고 자라 지금껏 살고 있는 저와 같은 토박이는 느끼지 못하는 타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장흥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장흥의 땅과 물에 적응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 지역에 스며들 듯 애정을 갖은 수기 공모자 모두에게 장흥군 토박이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흥은 앞에 ‘청정’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점점 숨쉬기 힘들어지는 요즘시대에 울창한 편백나무숲에서 뿜어지는 청량한 치톤치드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넘실넘실 넘어드는 장흥은 모두에게 뿌리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쉽 없이 돌아가는 도시에서 벗어나 작은 여유가 곳곳에 묻어나는 깨끗하고 인정 넘치는 장흥이 앞으로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장흥군의회가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장흥 라이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살아볼게
강흥이 최고여라



우리의 기억을, 꿈을 이야기하다



백수인 시인·조선대 명예교수

이번에 장흥군에서는 <2021 장흥살이 행복 이야기>『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 공모를 하였다. “장흥에 살아서 행복한 가족 이야기 및 정착 사례”를 주제로 두 번째 수기 공모 사업이다.

이 공모의 큰 목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의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어촌의 인구가 대거 빠져나가 도시에 집중되는 기현상을 이루었다. 수도권에 국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 기현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인구가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귀농·귀촌·귀어”를 장려하고 권면

하는 것이 지역 인구를 늘이는데 중요한 일의 하나인 것이다. 장흥군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체험 수기를 공모한 것이다. 장흥군의 입장에서는 “귀농·귀촌·귀어”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장흥’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의 “귀농·귀촌·귀어”와는 변별되는 ‘장흥’에서의 생활이 더욱 성공적이라는 것을 수기 공모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수기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을 말한다. 문학 장르로서의 수기는 수필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수필이 일상생활 중에 느낀 기분·정서 등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라면 수기는 특정한 경험을 생생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생한 전달’이란 독자에게 감동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수기에는 필자의 감정이 보다 솔직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효과적인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 체험 수기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독자가 글을 읽고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행동으로의 실현은 감동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심사위원 위촉을 받고 수기들을 꼼꼼히 읽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 이름이 없는 원고였다. 지난 5월 25일 심사위원들은 각자 심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심사 결과를 토의했다.

■ 대상 당선소감

그 결과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에서 서술한 수기 공모의 취지와 수기라는 글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잘 반영했는지가 심사의 척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아무 연고 없이 장흥에 오게 되어 장흥에 정착하며 살기까지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잘 서술해 나갔다. 장흥만이 지닌 여러 환경적 특성도 재미있게 반영함으로써 장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감과 흥미를 더해 주는 글이었다. 대상 작품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서의 개성을 잘 드러내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울 등 여러 도회에서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수기들을 읽고 '살기 좋은 장흥'으로 '귀농·귀촌·귀어'를 결심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수기 공모에 참여하여 장흥에서의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바란다.

이웃과 융화하고 소통하는 삶

엄승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면 상금마을에 사는 엄승은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우선 군민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열어주신 군수님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장흥으로 귀촌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살면서 느낀 소소한 얘기들을 적어 보았던 것이 대상을 받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 소중한 추억과 영광을 모두 남편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만큼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이니까요.

아름다운 청정지역 장흥으로 온 덕분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귀한 상까지 받으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흥의 고을이자 문림의향인 장흥에서 퍼져 나가는 행복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흥이 되고, 나아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욱 더 이웃과 융화하고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장흥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장흥이 겁나게 조아부요

엄승은

1. 장흥에 살게 된 동기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2021년 7월이면 장흥에 온 지 3년이 된다. 지인의 소개로, 평화리의 참새미골 펜션 관리를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장흥에 처음 와서 1박을 한 후, 펜션 오너의 말처럼 새 소리에 잠이 일찍 깬 우리는 근처를 돌아보았다. 억불산 산책로를 걸으며 도시와 확연히 다른 청량한 공기와 주변 경관에 반하고 말았다.

“여기 와서 살아봅시다. 일부러 전원생활하러 올만큼 좋은 곳인데” 하며 내가 더 원했다. 그래서 관리직을 맡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8개월간 하고 그만 두었지만, 소개한 지인과 오너에겐 항상 감사함이 크다. 장흥과 인연 맺게 해 주었던 분들이니까.

펜션 일을 마치고 남편 고향 쪽으로 가려고 결정했을 때였다.



장흥에 온 첫 해, 실버가요제에서 대상을 탔고 주최측의 회장과 알게 되었는데,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온 다음 날, 마침 이 회장의 전화를 받고 근처의 동백화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차를 마시며 이사 계획을 밝히니, 무슨 그리 섭섭한 결정을 했냐 장흥만큼 살기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화원 오너가 평화리의 빈 집을 적극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계약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그 집 주변에 배롱나무 군락지가 있고 경치가 좋아서, 우리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거기서 1년을 살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용산으로 이사를 했다. 자연인처럼 살고 싶던 내게 주변의 경치와 전망이 훨씬 더 좋은 곳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좋으셔서 조용하고 마음도 평화로우니 금상첨화는 이런 경우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가장 좋은 점은 집에 온돌방이 있다는 것이다. 몸이 피곤해도 딱딱딱한 온돌에서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개운해졌다. 조상들의 지혜를 체험으로 배워 가는 중이다. 땀감을 장만하느라 수고하는 남편도 그 일을 운동 삼아 기꺼이 하고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라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땀감은 부지런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가끔 이웃 분들로부터 당신들의 나무를 베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는데, 더러는 힘든 경우도 있지만 서로 좋은 일이라 즐겁게 한다. 이웃의 콤팩트 소유주께서도 가끔 무거운 통나무들을 마당에 실어다 주시기도 한다. 우리에게엔 트럭이 없어 일일이 카트로 땀감들을 실어



나르는데, 빨감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 마치 적금이 늘어가듯 기분이 좋다. 우리는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지점장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 무척 대조적인 느낌이 든다. 장작을 패느라 도끼를 내려치는 모습이 하도 멋져서 사진 몇 장 찍어 두었다. 나에게 알통 좀 만져보라며 웃는 그이를 보는 것도 시골 사는 재미 가운데 하나다.

뒷마당에 원래 텃밭이 있었는데, 남편이 밭 옆의 대나무밭을 뿌리째 파헤쳐 들어내는 힘든 작업을 여러 날 하여 밭을 더 넓혔다. 돌이 너무 많아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 손으로 일일이 돌을 골라내고 채소밭을 만들었다. 이웃들이 모두 놀라워한다.

식사하려고 손가락을 들었다가도 상추가 문득 먹고 싶으면, 텃밭에서 뜯어와 한 번 행구어 바로 먹는다. 상큼 씹살한 상추 향과 맛, 사 먹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여러 가지를 심어서 기대가 크다. 이웃에서 씨앗이나 모종을 주신 것과, 용산 마실장의 토종 씨앗 나눔 행사 때 얻어 온 것들, 그리고 구매한 것들도 심어, 토마토·방울토마토·콩·쑥·생강·파·양파·마늘·가지·오이·호박·부추 등이 자라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가 시골 생활의 제일가는 장점인 것 같다.

앞마당 텃밭에는 전망을 가리지 않도록 상추·고추·토마토 등 키가 작은 채소들과 꽃나무들을 심었다. 작년에 코스모스 씨를 입구에 심어 가을에 보기 좋았는데, 그 씨앗들이 어느새 바람타고 밭을 넘어 퍼져 나가서, 올가을엔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눈 호강을 할 것 같다. 개나리랑 금계국도 얻어다 심고, 이웃에서 주신 작약도 심었다.

좁쌀 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며칠 후나 몇 달 후에 파란 싹들이 쏙고 고개를 내밀며 올라오면, 늘 겪는 혼한 일인데도 너무나 신기하고 예쁘다. 일례로 옥수수 한 알을 심으면 거기서 수백 수천 배의 많은 알들을 얻게 되니 기적이 아닌가. 땅은 건강과 감동을 선물해 주는, 기쁨을 낳는 산실이다.

2. 제비 그리고 자연

작년에는 제비들이 집 처마 안쪽에 집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알을 낳고 아기 제비들을 데리고 둥지를 떠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제비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사람의 기척이 있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며 지냈고, 먹이를 물어다 먹일 때도 숨죽이며 방해하지 않으려 신경을 썼다. 알을 깨고 나온 아기 제비들은 신비 그 자체였다.

하도 귀여워서 둥지에 가까이 가면, 아기제비들이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고개를 한껏 돌려 빼고 짹짹거리며 노란 부리를 있는 대로 벌린다. 얼마나 짜릿하고 신기한지 모른다.

제비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방 밖에 있는, 정중앙의 처마 안쪽에다 집을 지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빈 방 근처에는 짓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엔 집을 안 짓는다 한다. 사람 사는 방과 가까워야 뱀이나 기타 위험 요소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새들의 지혜가 경이스럽다.

난 우리 집이 참 좋다. 그런데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고민이다. 제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마도 작년에 우리 집에서 네 식구를 늘려 재미를 본 제비들이 아닐까? 요즘 또 다시 호시탐탐 답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제비들도 나름 매너가 있는 것인지 새벽 5시 이전엔 조용하다. 대략 5시 반경부터 지지배배 합창을 시작하여 도저히 늦잠을 잘 수가 없게 한다. 작년에 제비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올해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남편이 텅자나무 가지로 처

마 안쪽에 도배를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련을 갖고 수시로 탐방을 나오는 제비들을 막느라 비닐 천막까지 박아 드리워 놓았다. 제비들의 분비물이 마루에 가득하여 매일 조석으로 청소해야 하는 일거리가 생기는 탓으로 올해는 출입금지를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남편 왈, 제비들이 아마 자기들이 이 집에 똥을 너무 많이 썼나보다고 하면서 반성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웃었다. 흥부전에 제비 얘기가 나온 것도, 제비가 집을 더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비들을 해코지 하게 되자, 각종 해충을 잡아먹는 익조인 제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작가가 그런 얘길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기적들을 시골에서 체험한다. 책에서 배운 것이 정말 그리움을 보는 즐거움은 시골 살이의 보너스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연과 어우러져 살 수만 있다면 악이란 걸 모르고 살다 죽을 것 같다. 예쁜 자연을 닮아가니까 나쁜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 변화하고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보면 잃어버리기 쉬운 감성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곳, 사계절마다의 자연 그 자체가 힐링이다.

우리 집 텃밭 쪽의 창문을 열면 모네의 풍경화 같은 그림이 나타난다. 노란 유채꽃, 뒷산과 하늘,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 멀리 보이는 앞산과 넓은 들판, 여기 저기 문만 열면 한가로움이 담긴 그림들이 늘 전시되어 있는 거대한 갤러리다.

장흥엔 어디서든 바다가 가깝고 아름다운 라이딩 코스가 지천이다. 도시에서 꿈꾸던 일탈이 이 곳에선 일상이 된다. 출퇴근길이 드라이브 코스이고, 모든 지역이 한가롭고 아름답다. 봄에 피는 갖가지의 작은 야생화들, 가까이서 보면 넘 양증맞아 전율이 온다. 목련·벚꽃·유채꽃. 여름이면 배롱나무들이 장관이다. 백일홍으로 알았던 꽃나무가 여기서는 배롱나무로 불리우고 있다.

가을이 오면 탐진강 수변공원과 온 들뜰에 금계국의 향연이다. 코스모스·국화도 시골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

겨울이면 첫사랑의 순정처럼 곱게 피어나는 동백, 흰 눈 속의 붉은 동백은 정말 아름답다. 천관산의 세계 최고의 동백군락지 말고도 어딜 가나 동백이 많다. 햇살 아래 다른 식물보다 유난히 더 반짝이는 동백잎사귀들에서 초록의 싱싱한 힘이 느껴진다.

장흥의 자랑, 어머니의 강으로 일컫는 140리길 탐진강은 호남의 3대강 중 하나인데, 물이 맑아 은어·치어·다슬기 등이 살고 있다 한다. 장흥댐이 생긴 이후엔 고기들을 방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장흥의 강과 바다, 산과 들, 사계절 내내 어디든지 살아있는 풍경화를 감상하는 것 같다. 갈수록 빠져드는 장흥의 매력 앞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때마다, 장흥에서 살 수 있게 해준 많은 인연들이 생각나서 몽클할 때가 많다.

3. 내가 느낀 복지 제도

나는 오전엔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 한 분을 방문하고, 오후엔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일선에서 일하다보니 한국의 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할 능력은 못되지만, 특히 노인과 아동,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장흥이 앞서 간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주민들을 방문하여 도움 일을 찾는 용산 면에서, 내가 방문하는 어르신 댁에도 테크와 철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동하실 때의 불편함을 덜어드렸다. 무료로 자원해서 해 주는 것이 감동이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엔 어르신 모시고 보건소 재활센터엘 다녔는데, 시설과 서비스가 수준급이었다. 장애우나 어르신들이 주 2,3회 건강체조, 치매예방 치료, 공예, 야외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렸다. 식사와 간식도 자주 제공되고, 모든 분들이 고마워하는 분위기였다. 내가 어르신을 모시고 보건소에 다닐 땐,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르신 걸음걸이에 힘도 붙고, 활기찬 나날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코로나가 끝나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고대한다.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며 그립고 또 그립다.

그리고 전국이 대동소이 하리라 여겨지지만, 아동복지도 참 잘 되어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맡아 학습 지도 및 인성 지도도 해

주고, 식사와 간식을 주며, 각종 악기도 가르친다. 알찬 시간으로 채워주니 부모들은 얼마나 안심인가. 나 역시도 한국의 복지제도 덕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보니 이 정도 수준이면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장흥남초에서 방과 후 교사를 할 때 알게 된 일화가 있다. 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 학습여행을 다녀온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이 정말 좋았다고 경험담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다. 역시 아이들이 행복한 장흥 맞다.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 더 좋겠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영어 교사로서 욕심이 있다면, 군 주최로 영어 이야기나 연극, 동요 부르기 같은 대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중생 혹은 가능하다면 고교생까지도 확대하여 행사가 거듭 이어져간다면, 꿈나무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인재 양성에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4. 문림 의향 장흥의 특혜

장흥은 걸출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문학의 유산과 발자취가 풍부하여 한국 최초의 문학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각종 공모전과 행사가 참 많다. 작년에는 네 차례의 문학 관련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문학인들의 발자취를 찾아다녔는데, 고 이청준 작가의 묘소가 있는 이청준문학자리와 생가, 한승원 작가의 시비들이 전시된 바닷가. 한승원문학산책길과 해산토굴, 이승우 작가, 송

기숙 작가 등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날들이 모두 추억이다.

글쓰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한동안 독서 삼매경이던 때도 있었다. 연이은 공모가 있던 그 때가 바쁘면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정남진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대여하여 장흥 출신 여러 작가들의 유명한 대표작들을 정독했고,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다.

오래된 숲에 있는 문화공작소에서는 명강사들을 초청하여 인문학 강좌도 열곤 하는데, 격조높고 유익한 강의가 배풀어진다. 이렇게 활발한 문학적 내실을 갖춘 지역이 또 있을까 싶다. 문학 외에도 문화 예술 축제나 공연 등이 많고 갈 곳도 많다.

작년에 야외 공연(에움 주최)이 있어 남편과 관람을 했다. 탐진강을 배경으로 한 무대의 수준 높은 공연들은 자연을 동시에 즐기는 효과로 도시의 막힌 공연보다 더 깊이 와 닿는 느낌이었다. 문화 예술 면에서의 장흥은 도시만큼 다양하진 못 하지만,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정남진 시네마라는 쾌적한 공간에서 영화관람도 할 수 있다. 장흥 사는 데 있어 도시보다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다.

5. 천관산과 문인들의 발자취

전국의 등산객들이 갈대 축제로 즐겨 찾는다는 천관산. 산 정상 의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 장관인데, 볼거리 또한 많다. 수백 개의 돌탑들이 일일이 자원한 면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니 더 경이롭고 숙연해진다.

전국 문인들 중 54인의 작품이 새겨진 시비들을 전시한 문학 공원 또한 불만하다. 유일하게 장흥 출신에 국한되지 않은 열린 공간이어서 더욱 신선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많은 문인들의 발자취가 천관산문학관에 잘 보존되어 있는데, 방문객들이 편안히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전국의 작가들 중 140여 명과, 유명 작가 24인 중 걸출한 세 명(고 이청준·송기숙·한승원)이 장흥 출신이다. 현재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 중의 다수가 장흥 출신들이라니 경탄을 금치 못하겠다. 1700년대부터 시작된 가사문학이 뿌리가 되어 그 문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덕분이라 한다. 고 이청준 작가의 묘소가 있는 갯나들 문학자리와 「눈길」이란 소설의 배경이 된 산길. 그리고 한승원 작가가 글을 쓰고 후학을 지도하는 <달 긴 집>, 바닷가 시비 전시장 한승원의 문학 산책길은, 문학도가 아니더라도 방문객들의 탐방 필수 코스이다.

아름다운 탐진강변을 따라 만나게 되는 정자문화도 자랑할 만하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리잡은 겸손한 정자들이 정다워 보인다. 정자에 새겨진 한시들을 우리 말로 풀어 현대인들도 읽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 이야길 들었는데, 역시 풍류와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장흥인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팔목할 만한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생각해 보니 장흥만의 독특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머니의 젓 같은 탐진강의 물을 먹고, 아름다운 풍광 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다보니 형성된 풍성한 감성의 유전자 말이다.

6. 늘어나는 이웃

우리 마을엔 요즘 도시를 떠나 귀향 또는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곳이 세 곳이나 된다. 코로나를 겪으며 시골을 선호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다더니, 그래서일까?

이런 식으로 도시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골고루 발전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로선 새로운 이웃이 생기는 반가운 현상이다. 우린 더 일찍 귀촌 못한 것이 아쉬운데, 그래도 더 늦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생활을 즐긴다. 도시에서 살 때, 일기장에다 하루를 살아냈다고 표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하루를 즐겼단 말을 자주 쓰게 된다.

가까운 군 내에 장흥댐을 비롯하여 운주, 재송 저수지 등 농민들의 젖줄인 저수지들이 많은데 주변 경관도 하나같이 아름답고 조용하다. 탐진강변 양 옆으로 장흥에서 강진으로 이어지는 벚꽃길, 소등섬 가는 길의 벚꽃 아치 등은 가히 장관이다. 용산면의 남상천을 따라 형성된 벚꽃 길도 아름답다.

눈부신 봄 햇살아래 머리에 당을 듯한 벚꽃길을 자전거로 달리며 얼마나 행복한지, 벌써 내년 봄이 기다려진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썩을 뜯어 배낭에 담아 온다. 올해도 썩을 뜯어 도시에 사는 딸들에게도 보내고 일부는 떡을 했는데 맛있게 되었다. 내년엔 더 많이 뜯을 생각이다. 남편과 오순도순 얘기하며 봄나물을 뜯는 여유로움이 행복이라는 고운 빛깔로 가슴 속에 스며든다.

7. 장흥의 9경 9昧 9품과 즐길 거리

여름이면 3년 연속 축제 콘텐츠상을 수상하여 더 유명해진 장흥물축제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중이지만, 물축제 때 전국에서 탐진강으로 모여든 많은 인파에 놀라고 행사의 규모와 내실에 놀랐다. 과연 상을 탈만 하다고 생각된다. 강변의 토요일에는 싱싱한 해물이나 채소를 사러 가는데, 삶의 활기가 넘치는 현장을 보는 재미도 있다.

장흥의 9경은 보림사·탐진강·제암산·장흥 토요일·편백 숲 우드랜드·소등섬·천관산·정남진 전망대·선학동 마을이다.

9미에는 장흥 삼합(장흥 한우·표고버섯·키조개), 키조개 요리·갑오징어회와 먹짬·매생이탕·바지락 회무침·하모(샤부샤부)·된장 물회·굴구이·황칠백숙이 있다.

9품에는 장흥 표고·한우와 육포·황칠나무·장흥무산김·청태전·친환경쌀 아르미·낙지·헛개나무·매생이가 있다.

8. 별 걸 다하는 남자

우린 이제 집에서 머털 자른다. 이발 도구를 사서 서로 잘라 주다가 최근엔 남편이 본인 머리, 내 머리를 다 손질한다. 읍에 나가면 미용실이 많지만, 절약된다는 뿌듯함과 도시에선 안 해봤던 일에 도전하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어느 달 밝은 밤, 마당에서 카트를 하기로 하여 남편에게 머리를 맡겼는데, 잠깐의 실수로 귀에서 피가 났다.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촬영하던 중이라 다 녹화가 되었는데, 남편의 반응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난다. 카트는

대낮에 해야겠다 교훈을 얻었다.

자연 비료를 만든다고 작은 불 일은 뒷마당의 전용 독에 보는 남편. 누가 뒷구석에 놓인 그 독을 보게 되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거의 다들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하니 흥이 아닌 모양이다.

며칠 전엔 중고 예초기를 샀다. 몇 달 전엔 전기톱을 사고, 도끼는 장작을 많이 꽤다 보니 잘 망가져서 세 개 짜 샀는데, 남편 손을 거쳐 하나 들썩 농기구가 늘어난다. 그리고 차츰 까무잡잡하니 심신양면으로 농부다워지고 있다. 천정이나 벽이 무너져도 제법 그럴싸하게 고치고, 전기나 수도 고장이 나도 웬만한 건 다 고치니까 내가 '김가이버'라 부른다.

남편이 오전에만 일을 하니 자연스레 살림을 도와주게 되어 난 거의 부업에서 해방되었다. 이것도 시골이 좋은 이유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9. 마실장과 씨앗 공간

용산의 마실장엔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려는 뜻 있는 분들이 농민들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조직을 제대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서 사뭇 기대가 크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깨어 있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농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부부도 군민으로서 이런 훌륭한 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 씨앗 공간의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되려고 한다. 첫 준비 모임에도 참석했는데, 쟁쟁한 젊은 군민들이 모여 토



종 씨앗 포함, 효율적인 농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을 보고, 농촌의 희망을 느꼈다. 한국이 씨앗 보존은 물론 농업의 발달 수준이 현재 세계 6위라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나니 자부심에 뿌듯했다.

마실장 풍경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장 놀이 같다. 부모를 따라 나선 아이들이 자기들이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팔기도 하고 무상으로 나눠 주기도 하는데,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재미있어 보였다. 집에서 만든 빵을 팔며 직접 거스름돈도



내 주는 고사리 손을 보며, 이러한 소규모적인 매매와 나눔을 통해 건전한 상업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두부·수수뿌끄미 부침개를 즉석에서 해주기도 하고, 김치류나 호박죽·토란국을 해 오는 분들이 계시다. 가성비도 좋다. 도시 못지않은 가족 공예품들도 있다.

장을 마치면 원하는 사람들 모두, 어떤 때는 2~30여 명 이상 삼삼오오 점심을 먹는데, 아이들은 무료이고 어른들은 1인당 삼천 원이다. 요즈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는 수가 많지 않지만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소박한 밥상이 그리워 장날을 기다린다는 주부도 있었다. 이런 마을의 풍경이 소탈하고 정겨워 보인다.

어린이들에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 산교육을 하는 공간이 되어 주니 좋다. 젊은 귀촌인들이 제법 있어서 함께 장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많은 사실이 나로선 신기했다. 뛰어 놀기도 하고 재잘거리며 웃는 소리가 아이들이 귀한 시골에선 음악처럼 듣기 좋다.

10. 내가 즐겨 가는 맛집

정남진 타워가 보이는 신동리에 정남진 팔칼국수집이 있다. 부부가 운영하는데, 국산 팔을 사용하면서도 저렴하여 가성비가 높다. 여주인의 요리솜씨가 일품이라 우린 나온 음식들을 활듯이 알뜰히 비우고 온다. 앞의 바다에서 잡은 낙지는 단골들에게 택배로 나가는 바람에 요리할 것이 안 남는다고 들은 적이 있다. 거기서 채취한 미역을 팔기도 하는데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 인심도 좋아서 고구마나 옥수수가 제공되는 적도 있다.

우연한 기회에 “아니, 장흥에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색적인 곳을 발견했다. 용산면인데, 평화로운 들판 가운데 특이한 이름이 쓰인 ‘남하 부엌, 남하 점빵’이라는 작은 간판이 소박해 보였다. 특이하고 기발한 식당 안팎의 분위기가 인상적이고, 음식 맛도 좋았다.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타지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11. 만보 걷기의 묘미

장흥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열흘 동안 총 7만보를 걸으면 5천 원의 편의점 상품권을 주는 챌린지가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이 느껴졌는데, 참여해 보니 상당히 동기 부여가 된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린 하루에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는데 7~8일 만에 달성되거나 더 걸리기도 한다. 걸음 수가 조금 부족하면 더 채우려고 조금 더 걷곤 하는데, 달성할 때마다 생기는 상품권으로 커피·껌 등을 살 때마다 공짜 같아서 기분이 좋다. 일석이조라서 우린 적극 참여하는데 행사가 없는 때에도 시간이 나면 걷는다. 남들 밭에 농사지은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는데, 걸으면서 부부간에 대화도 많이 하게 되니 참 좋다.

12. 마지막 소풍

서울 살 때 이웃에서 가깝게 지냈던 부부가 경기나 강원 쪽으로 귀촌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장흥에도 놀러와 보라 했다. 작년엔 우리 집에 2박 3일의 여행을 두 차례 다녀갔고, 두 번 째 방

문 때엔 안양에다 땅을 샀는데, 서울의 가게를 정리해야 귀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얼른 오고 싶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 차로 가면 20여분의 거리에 있는 땅인데, 사실상 우리와의 인연 때문에 오게 되는 첫 사람들이니, 귀촌 선배로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 주변 친척들도 나중에 따라 오겠다고 한데 세월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일이다.

인생을 세상에 잠시 소풍 온 걸로 비유함은 마음을 비우는데 도움이 되는 참 멋진 표현이다. 난 여기에서 마지막 소풍을 한껏 즐기다가, 때가 되면 먼 여행길에 오르려 한다. 갈수록 정이 드는 고향 같은 곳, 바로 이 곳 장흥에서...





최우수상

장흥에서 30년 살아본게
"자음사람 다 도부러쏘!!"

조영례



장흥!
길게 흥하는 땅~~

사람은 어디에 살든 살아가게 되지만, 어느 곳에 정착해 사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 등 무수한 자극을 받아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로 서게 되는 문화적인 존재인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이다.

어느 덧 장흥에서의 30년의 삶. 지금은 고즈넉이 지나온 발자취를 떠올려 봅니다. 26세 꽃다운 나이인 1992년 9월 27일 장흥의 장날 우린 큰 트럭을 불러 타고 이사짐을 싣고 장흥 땅에 입성을 했다. 그 때 우리 큰 아이는 한 달도 안 된 그야말로 떡 애기로 부드러운 이불에 감싸 소중히 안고 장흥 땅을 밟은 거다. 급하게 이사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랬던 아파트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시누님이 그래도 방을 구해 주셔서 양옥집 한 칸의 기다란 기차 모양의 방이 3개, 그리고 입식 부엌으로 구성된 집이었다.

막다른 길 옆의 끝집, 그 옆엔 다랭이 논이 물결치듯 위치해 있었다. 이불 빨래를 널라치면 바람에 날려 논 안에 이불이 빠지기가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동백꽃다운 수줍은 새댁의 장흥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지인은 낡은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보며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좁은 베란다지만 거기에 화초도 키우며 사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도 푸근히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어둑어둑했다. 씻는 곳

도 통로에 문을 달아 막은 그 공간에 기름통과 기름보일러, 한켠에 세탁기를 간신히 들여놓고, 시궁창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꽃다운 20대가 시든 꽃처럼 힘을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육아도 처음, 부부생활도 처음, 낯설은 환경까지 소용돌이 치듯,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거 같았다. 그해 겨울은 왜 그리도 추웠는지~~ 잠을 자면 외풍은 왜 그리도 세었는지! 모든 것들이 20대의 꽃 새댁이 감당하기에 힘든 여건들이었다.

첫애 기저귀를 밖에 수돗가에서 손빨래하면 손이 너무 시려워서 호호 불며 나의 20대의 중반 고개를 넘겼다. 다행이 먼저 정착해 사신 큰방 선생님 사모님의 안내로 이웃을 사귀고, 5일장도 가



보았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한 발 한 발! 발을 때 뚫, 내딛어 밖으로 나왔다. 그래도 둘째는 생김 줄도 모르게 생겼다. 큰방 선생님 사모님이 발령으로 타지로 가는 바람에 다행이 우리가 큰방으로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큰방은 넓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넓다라 했다. 그래서 식탁이란 것도 사 보았다. 큰 아이는 뱃구레가 크고 튼실하게 자랐다. 모유 수유하다가 시기가 되어 분유로 돌렸다. “우유 먹을 준비 됐나요?” 하면 아무데나 등을 데고 눕는다. 우윳병을 주면 두 손 모아 받아서는 순식간에 비웠다. 그 당시에도 잘 먹는다 했는데 지금 글 쓰는데도 입 꼬리가 올라가는 미소를 준 아이다. 그렇게 우리 큰 아이는 장흥 땅에서 또 한 살을 먹고 자라고, 1994년 10월 17일 드디어 우리 둘째가 탄생하였다. 삼겹살을 먹고 아이를 낳으면 순풍순풍 잘 낳게 된다고 하여 그 전 날 삼겹살을 먹어서인지 다행히 순산을 했다. 장흥에서 생기고 장흥에서 순수 태어난 거다. 장흥이 낳은 예쁜 딸!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인성이 좋은 아이로 커가길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는 장흥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거 같았다.

큰애는 아들이서인지 돌이 지나니 바깥 활동이 많았고, 우리 딸은 고물고물 인형도 가지고 놀고 내 옆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았다.

나는 전문 직종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애들에게 할애해야 할 시간들이 많아 자유 직종을 선택해 결혼 후 첫 사회 활동을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도 구입하고 유아 교육도 많이 받는 직업(복세일)을 선택해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을 병행했다. 당당히 한 집 한 집 방문하여 우리 애들 기른 체험담도 전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참 보람된 시간들이었다고 본다. 지금 생각해보니 타 지역을 방문 할 때는 당당히 “장흥에서 왔어요~~”하며 장흥도 자연스레 홍보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애들이 둘 다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아르바이트 같았던 직종에서 내 본연의 전공을 살려 “치과의원”에 들어가 근무를 하게 되었다. 보육기관에 보낼 때는 애들이 적응하기에 힘든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커 주었다. 그래서 애들에게 소홀할까봐 밤에는 두 아이를 옆에 누이고 팔베개를 해주며 동화책도 읽어 주었다.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다. 애들도 나도 가정 안에서 하나가되는 “쉽”을 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여름 큰 비가 오고 맑게 게인 날, 아빠는 투망을 들고 애들을 차에 태우고 용산·유치·안양에 있는 하천에 간다. 투망을 넓다랗게 펼쳐 한 코 한 코씩 손으로 잡아 어깨에 메고는 하늘에서 아래로 뿌린다. 그러면 대피리·걱지 등 여러 가지 물고기 등이 삼시간에 그 안에 들어온다. 아빠가 투망을 펼치면 애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손뼉을 치며 까르르 흰 소금같은 웃음을 웃으며 즐거워한다. 잡은 물고기는 라면과 함께 끓인다. 어느 날은 유치에서 투망을 해서 라면에 대피리 등을 넣어 끓였는데 우리 딸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래며 “저기 물고기 눈이 있어”하며 신기해 했다. 이렇듯 장흥은 실질적인 경험으로 사물을 접하게 해주는 귀한 자원이 있는 고장이다.

그리고 장흥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용산면 풍길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친구랑 같이 주 1회씩 찾아가서 거의 1년 이상을 학습을 지도해 주며, 그들의 학업 뿐 아니라 고충까지 들어주는 “상냥한 누나” 역할도 했던 거 같다. 같이 간 친구도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 “국제학과” 전공을 하는 등 이제는 우리 뿐 아니라 다문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폭 넓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됨이 감사하다. 한 지역에 국한된 아이들이 아닌,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한 세계 글로벌 인재로 자라게 됨이 또한 감사하다.

그렇게 장흥은 우리 애들을 길러주고, 꿈을 주고, 도전하게 했고 자라게 해 준 소중한 곳이다. 커다란 베이스가 되어 다른 읍들을 올리게 하여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게 했다. 이곳에서 우리 두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녀 당당한 “장흥인”으로 당당히 대학을 진학해서 지금은 28세, 30세의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등지를 떠나 한 명은 서울에서, 또 한 명은 여수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애들이 오지 못해도 우리는 날마다 가족 카톡을 통해 장흥에 뿌리를 두며 서로 소식을 주고 받는다. 어느 날은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기도 한다. 이제는 그들이 힘들 때면 언제든지 장흥에 와서 쉬어가며 다시 힘을 얻는 곳이 된 것이다.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2011년 3월에 장흥군보건소에 입사를 해서 현재 근무 중이다. 부임한 첫해에 안양면에 “생활터 가꾸기”보건소 사업이 있어 몇 개 마을을 담당해 그 마을 사람들과 마을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 나는 상운·운정·요곡·묘령마을을 담당해 꽃길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만들고, 안전운전 교육 및 스티커 배부, 스트레칭 체조 등 여러 가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저를 보더니 치과에서 나와서 마을에 도움을 주시는 줄 아셨단다. 그래서 직장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했더니 “참말로 잘했오” 하시며 엄청 좋아하셨다. 그분들과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며 친밀감이 더 쌓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이 그립고 안양이 꼭 친정 같은 기분이 들어 사랑스럽고 정감이 가는 곳이 되었다. 어찌 보면 제2의 친정이 된 셈이다. 이러면서 “장흥 맥”이 되는가보다.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센터(정신, 치매)에서 근무를 통해 우리 군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음을 실전에서 배웠다. 집 밖을 못 나오는 사람들, 살아 있으나 점점 기억력이 흐려져 자식도 못 알아보게 되는 치매를 앓는 분들을 보며 예방과 치료 등을 생각하게 되며 진정 그들의 친구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딸로 이 장흥에서 살아야 함을 배웠다.

물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꼈다. 행사 하나하나 준비에서부터 10개 읍·면의 주민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과 한데 어울림의 젊음! 그 자체를 호흡하는 시간들이기도 했다. 몇 년 전에 물축제 시작 날인데 폭우가 쏟아져서 강변에 준비되었던 집기류 등이 떠 내려가고 흙탕물에 탐진강이 신음할 때 우리 장흥 군민이 하나되어 그 상황을 극복했던 소중한 시간들도 떠오른다. 내가 장흥군 보건소에 근무함으로 함께 참여하고 극복하고 사랑을 모으고 사랑을 나누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 곳 장흥에서의 삶이 한때는 힘이 들어 그저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이때까지 나를 이끈 좋은 땅이었음을 고

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곳이다. 2000년도에 그렇게 꿈꾸던 아파트에 그것도 넓은 평수에 입주하게 되어 떨 듯이 기뻐다. 베란다도 앞뒤로 넓고 거실도 넓고~~

일어나면 기쁘고, 잘 때도 기쁜 아름다운 우리집을 우리는 같이 살게 된 것이다. 상전벽해라고 했던가! 우리 큰 애가 6세 때 었는가 울퉁불퉁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엄지 발톱이 뒤집어 까져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 도로가 이제는 길이 뺄 뚫리고 그 옆으로 아파트가 몇 동씩 들어서고 하는 걸 보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신혼 때 살면서 보던 그 다랭이 논이 이제는 아파트가 웅장하게 들어서는 모습도 본다.

이렇게 장흥은 눈에 띄게 서서히 발전한 게다.

길게 흥하려면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세대간이 하나로 공존하는 그런 고장이 되어야 하리.

나는 시간 되는대로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 예쁜 탐진강을 보고 싶어 강변으로 나와 산책을 한다. 늘상 다니는 길이지만 어느 날은 달리 보였다. 거기에 풀잎 하나, 소세히 봐야 보이는 작은 풀꽃 하나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를 잘 가꿔줘~~ 우릴 사랑해줘~” 하는 소리 말이다. 나태주 시인이 그러셨던 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셨듯 장흥이 이런 거 같다. 깨끗하고 예쁜 장흥!

산해진미가 풍요로운 장흥이지만 설익은 술이 아니라 오래묵은 술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쉽이 필요할 때 오고 싶은 곳이지 않는가 싶다. 탐진강변에 나가면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보이고 징검다리 사이로 부리나케 빠져나가는 맑은 물을 보며 거기에서 “생명”을 본다. 살아 있음을 말이다.

장흥은 이제 물축제로 많이 알려지고 관광 수익도 올리는 고장이지만 이제는 거기에 “생명존중사상”으로 폭 넓게 접목해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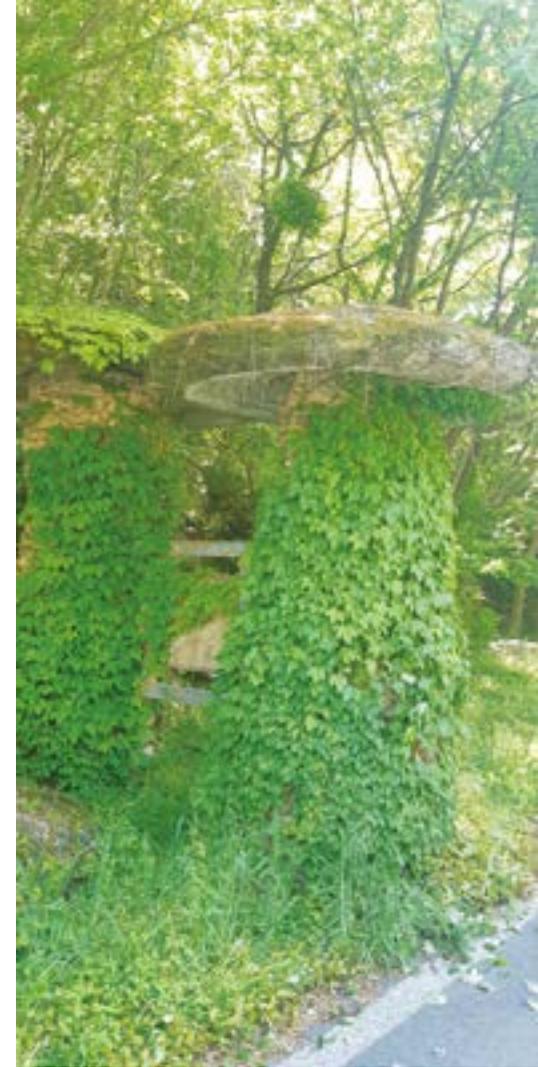
그리고 탐진강 S자 징검다리를 건너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천진난만 뛰놀았던 맑은 물이 있었던 곳, 우리 아이의 아이가 뛰놀아야 맑은 물이 흘러 넘쳐야 할 곳,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세대가 후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기존세대와 신세대를 이어주는 장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구 시대와 변화를 꿈꾸는 신 시대와의 조화를 현명하게 이끌어 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번에 발표한

우드랜드 편백숲 모노레일은 참 바람직한 발상이며, 약자를 배려한 모두가 좋은 경치를 보고 느끼게 하는 평등도 들어 있음이 좋았다. 남녀노소 모두가 아름다움을 공유하며 즐길 수 있게 함이 너무 좋았다. 이렇듯 우리 장흥이 가진 천연의 좋은 자연 자원을 이용해 상품가치가 있는 관광사업으로의 발걸이 우리 장흥이 살 길이라 본다. 충분히 자연 그대로를 손상하지 않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자원의 개발을 꿈꾼다. “자웅스럽게~” 현대라는 단어안에 “자웅”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자웅”을 볼 수 있게 말이다. 그야말로 단팥빵 안의 없어서는 안 될 앙꼬 같은 거 말이다. 이런 꿈을 꾸며, 어느 날은 징검다리를 천천히 “자웅스럽게~” 여유를 가지고 걷는다. 어떤 날은 우리 장흥의 발전을 꿈꾸며 징검다리를 힘껏 밟으며, 힘차게 숨이 찰 정도로 뛴다. 장흥에서 30년을 살다보니 장흥이 발전되길 꿈꾸는 “장흥맨”이 되어 버렸다.



녹색 원피스 입은 유치 휴양림 표돌이 모습



새롭게 보이는 천관산 전경

그 물이 흘러 흘러 푸른 숲을 이루는, 물과 산이 어우러져있는 정남진 장흥!

작년 8개 명산을 완등하는 기회를 갖었다. 한 개, 두 개 산 정상 을 오르며 내 마음속에 장흥을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더 담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장흥인”으로 서게 한 것이다.

이제는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를 하나하나 셀만한 나이가 든 시 점이다. 우리 아이들 또래 같은 직원들과 근무를 하게 되어 그들 을 내 자식처럼 더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품어주는 아량이 생겼다.

이곳 장흥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아이를 낳기 좋은 고장!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한 땅!

미래를 꿈꾸기에 소망이 있는 땅!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루는 땅이 되리라.

해동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힐링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리를 내주며 넉넉 히 힐링하게 하는 곳!

풍부한 산해진미 먹거리가 풍부하고, 계절마다 산들이 옷을 갈 아입는 땅!

봄에는 제암산과 삼비산이 철쭉으로 큰 군락을 이루어 “어서 오 라”고 손짓하고, 가을이면 천관산이 은빛 갈대로 포옹하며 “괜찮 아, 많이 힘들었지, 다 알아~ 강 쉬고 가”하며 안식을 주는 곳, 장 흥~~

어느새 장흥에서 삼십 년 살다보니 이제는 나도 모르게 장흥의 땅을 손으로 만지고, 푸근한 흙을 주무르고, 이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에 없는 장흥에 푹 빠져서는 “자응인”이 되어 버렸다오!!

&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

*내가 사랑하는 **자응***

우리 함께 할 **자응**



최우수상

아이들에게 찾아온 선물, 장흥

최현정



장흥은 어디이지?

2018년 2월. 인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광주생활이 연장되기를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이유는 딱 하나 뿐이었다. 나의 직업상 이유로 여러 시·군을 이사 다녔고 앞으로도 이사를 다니게 될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덜 전학시키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나의 바람과 달리 장흥으로 발령이 났다. 그제야 나는 인터넷으로 장흥이 어디 있는지, 장흥이 어떤 곳인지 검색해 보았다. 매우 부끄럽게도 당시까지 내가 장흥에 대해 아는 것은 딱 하나, 장흥은 전라남도에 있다는 것 뿐이었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장흥에 대한 정보는 '서울을 기준으로 정남쪽에 있는 정남진이 있는 군이다. 장흥은 동쪽은 보성, 서쪽은 강진, 남쪽은 바다이다. 광주에서는 한 시간쯤 걸린다. 물축제와 장흥삼합·탐진강·표고버섯 등이 유명하다'였다. 그나마 보성은 녹차밭으로, 강진은 정약용의 유배지로 알고는 있었지만 보성도, 강진도 그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번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장흥에 가서 살게 되었구나.

장흥에 대한 첫인상, 아름다운 탐진강!

장흥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한 것은 탐진강이었다. 장흥읍에 처음 들어 온 순간 너무나도 예쁜 강을 만날 수 있었고, 장흥에서 우리 가족이 살게 된 곳과도 멀지 않았다. 서울에서 본 한강은 너무 컸고 강변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로 빼곡히 차 있어 내게 별 감흥을 주지 아니하였고, 고향에 있는 오십천은 등하교시 추운 강바



람만 기억이 나는 별거 없는 천이었는데, 탐진강은 크기도 적당하고 주변 정비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새들도, 물고기도, 식물도 가득한 아름다운 강이었다. 장흥에 탐진강이 유명한 이유, 물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장흥이 익숙하지 않았던 첫 달, 우리 가족은 매주말 탐진강변에 가서 놀았다.

장흥초등학교

아이들은 장흥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첫째 아이는 4학년으로 전학을 했고, 둘째 아이는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인구 4만 명 정도의 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가 매우 작을 줄 알았는데, 장흥초등학교는 한 학년당 5개 반, 한 반에 평균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는 큰 학교였다. 아이들의 전학과 입학

관련 수속을 밟을 당시는 알지 못하였지만, 장흥읍에도 장흥남초등학교, 장흥서초등학교처럼 한 학년에 한 반으로 구성된 작은 학교들이 있었고, 근처 읍·면에서 장흥읍내로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장흥초등학교에 보낸 것에 후회가 없지만,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정보가 제공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흥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광주(아이를 학교에 보내본 곳은 광주가 유일하여 다른 비교군은 없다)와 가장 큰 차이로 느끼는 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체험학습 비용도 없고, 방과후 활동도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였으며, 우유급식비만 내면 되었다(2021년에는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원칙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비용을 내지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교육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전남 교육의 방향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다양한 활동으로 커가는 아이들

광주와 두 번째 차이는 다양한 체험 기회의 제공이 많다는 점이였다. 장흥군, 장흥교육청, 전라남도 산하 기관,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아마 광주에서도 이런 기회가 없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안내문을 거의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고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신청을 해도 되는 경우가 드

물었다. 장흥에 오니 아이들이 수시로 어떠한 활동이 언제 이루어지니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가지고 왔다.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보였고, 신청을 했을 때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정말 많은 활동을 하였다. 제빵, 공예 등 직업 체험, 자연과 함께 하는 방과후 체험(방학에 운영), 마을학교가 주관이 되어 이루어졌던 집만들기, 벼룩시장, 장흥의 역사탐방, 창의력캠프, 갯벌체험, 가족캠프, 승마체험, 수확체험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개인이 기획해서 하기는 어려운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즐기는 아이들

아이들은 또한 장흥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기회를 자주 얻었다. 장흥은 우리 가족에게 달과 별을, 산과 나무를, 강과 물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기회를 다양하게 주었다.

우선 달과 별을 보는 건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의 오랜 즐거움이었다. 이런 즐거움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장흥에 오니 억불산 자락에 위치한 천문과학관이 보였다. 우리 가족은 천문과학관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천문과학관에 설치된 여러 망원경들을 이용하여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낮에 가서는 해를 보았고, 밤에 가서는 달도 보고 계절별 별자리 관측도 하였으며, 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별이 지구 주변의 행성이라는 점도 알게 되고 그 행성들의 표면, 위성이나 고리도 보았고, 별뿔별이 가득 떨어진다는 날에는 인생 처음 별뿔별을 보기



도 하였다. 또한 천문과학관에서 운영하던 ‘별난 가족 별난 캠프’에 참여하여 장흥군이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태양도 관찰하고(이 때 제공된 태양을 보는 안경은 집에서 일식을 보는데도 잘 이용하였다), 공기대포나 천체지도 만들기도 하고, 망원경도 가족별로 제공받아 조작법을 배우고 달과 별자리를 아이들이 직접 찾아 관찰하기도 하였다. 강변에 위치한 캠프장

도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 함께한 가족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캠핑을 할 수 있었다.

장흥 주변에는 나무로 가득한 산이 많다. 그 중에서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장흥에서 유명한 우드랜드가 있었고, 수시로 그곳에 가서 편백나무가 주는 피톤치드를 잔뜩 마시고 올 수 있었다. 우드랜드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다양한 산책로를 가지고 있었다. 집이 불과 몇 키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숲이 주는 상쾌함,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의 나무들이 주는 특별함

도 경험하기 위하여 가끔 우드랜드 안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숙소 중에 한 곳은 아궁이에서 직접 불을 지피 황토방에서 찜질을 할 수도 있었고, 숙박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금찜질방에서의 찜질도 즐겼다. 공기 좋은 숲속에서 다양한 식물을 구경하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나무가 주는 향기를 맡으면서 산책을 하는 시간은 우리 가족의 가슴에 한켜 한켜 행복한 추억을 쌓게 해 주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강과 물이다. 장흥에는 한여름에 이루어지는 물축제가 유명했다. 더운 여름 특히나 아이들에게 물놀이보다 신나는 건 없었다. 더욱이 물축제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신나게 했다. 국적,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우러져 함께 물총을 쏘고 물을 뿌리는 살수대첩 현장에는 사람들의 얼굴에 핀 환한 미소,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비명으



로 가득찬다. 강 위에서는 수상자전거, 보트 등을 타고, 물고기 잡기, 수중 줄다리기를 하고, 강변에는 물풍선 던지기, 장애물 건너기, 슬라이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으며, 2019년에 설치된 분수와 상설 어린이 풀장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 주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정신없이 물놀이를 했고 또 하고 싶어 했다.

이웃으로부터 얻는 신선한 먹거리와 그 이상의 것들

장흥의 음식으로는 한우삼합이 유명했다. 한우·키조개·표고버섯, 하나씩만 먹어도 맛있는 식재료인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것도 산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것을 먹으니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멋진 특식이었다.

특식도 좋지만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장흥의 먹거리가 좋았던 것은 직접 정성들여 키운 신선한 식재료들, 그것들로 만든 가공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5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이나 같은 곳에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일장은 그런 먹거리의 구입을 쉽게 해 주었고, 온라인에 개설된 맘카페나 지역 관련 밴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고마운 생산자들은 아이들에게 수확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수확은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찬 일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고, 먹거리의 소중함도 함께 느꼈다. 또 장흥의 생산자들로부터 먹거리를 구입하게 되니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장흥사랑상품권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우리 가족은 신선한 먹

거리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장흥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욱 좋았다.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더 빛나는 장흥생활

2020년 2월 말경, 매년 3월 2일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개학이 1주일 연기가 되었다. 그 연기는 또 2주, 또 2주... 계속해서 기약없이 연기되었다. 학교를 못가다니! 어른들께서는 전쟁 때도 학교는 갔다고 하시던데 정말이지 초유의 사태였다. 학교만 못가는 게 아니라 실내 운동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은 억불산에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빠가, 그 다음에는 엄마도 함께, 그 다음에도 아이들도 함께 매일 아침 산에 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산행이었지만, 억불산은 우리 가족에게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임도와 등산로가 별도로 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이 수준에 맞게 골라 다녀올 수 있었다. 봄과 함께 시작한 산행은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 아이들은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꽃이름을 묻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다람쥐나 청설모를 찾아보곤 하였다. 매일 하는 가족의 산행은 우리 가족에게 풍부한 대화시간, 자연에 대한 넓은 공감, 건강한 신체를 가져다 주었다.

장흥군은 코로나 초반부터 적극적인 방역에 나섰다. 수시로 소독이 이루어지고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동네방송이 이루어졌다. 전국, 전세계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났지만 장흥에서는 우리나라에 1호 환자가 생긴 때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감염자



가 발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근간을 이루었고, 그 노력의 결과에 더하여 수개월이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장흥군 1호 환자가 되고 싶지 않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까지 더해져, 장흥에서는 코로나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장흥읍에는 장흥공공도서관과 정남진도서관, 두 곳의 도서관이 있다. 이 두 곳의 도서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을, 고전에서부터 신간에 이르기까지 적극 공급해 주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도 예약대출시스템이 잘 운영되어서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네

는 도서대출을 전혀 할 수 없다며 우리 집을 부러워했다.

다시 장흥초등학교

장흥의 장점은 코로나로 인하여 변한 학교 교육에서 빛을 발하였다. 아이들의 개학은 연기되고 연기되다가 결국 온라인개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처음 나는 온라인 수업이라니 그게 되거나 되나, 무늬만 개학인 것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이 되자 아이들의 담임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온라인 수업에 임하셨다. 언론에 나오는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수업, 기존 제작된 영상만 링크한 채 성의 없이 이루어지는 수업, 이런 내용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온라인 환경을 어려워하던 3학년들은 담임선생님과 미리 쌍방향 접속과 쌍방향 소통을 연습해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장흥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별로, 각 초·중·고 과정별로 한 학교씩 선정한 온라인수업 우수학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더 좋았던 것은 등교개학이 시작된 이후로 아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등교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등교가 가능했던 건 장흥이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점,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었다는 점, 장흥초등학교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지만 시차제 등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집중도를 줄였다는 점(아이들은 옆 반 친구를 만날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하였지만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그만큼 아이들의 밀집도 관

리가 잘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정책결정자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등교라는 믿음으로 등교결정을 유지해 주신 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다. 2021년 봄 어느 날 퇴근길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2020년 학생들의 등교 일수를 보도하는 뉴스였다. 전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환경에서 2020년을 보냈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전남의 친자연적이고 등교교육이 가능한 훌륭한 교육환경으로 서울의 학생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였다. 나도 그와 같은 안내문을 온라인에 공유하였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처럼 즐거움, 행복감을 맛볼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내가 공유한 안내문을 본 지인들의 반응은 아이들이 학사 일정의 대부분 등교를 했다는 점이 놀랍고 부럽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지인에게는 그동안 아이들과 장흥에서 생활하면서 앞서 적은 것과 같은 좋은 점이 많다고 마구 홍보하기도 하였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장흥

2020년 10월 어느 날 장흥군이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라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남도일보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지자체를 말하는데, 장흥군이 2020년 10월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이는 전남 군 단위 최초인 동시에 전국 군 단위로는 5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장흥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나의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님을 확인받은 날이었다.

마치며

나의 장흥생활에서 아이들과 너무나 행복했던 경험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 두 아이가 모두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장흥으로 이사를 왔고, 첫째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기는 하였지만, 장흥에서 중학생인 아이 키우기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점이 많다. 그래도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한번 뿐인데,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장흥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 행복한 기억이 아이들의 인생에 중요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기에, 장흥에서 보낸 시간이 아직 길지 않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나의 경험 때문이다. 나도 6세부터 9세까지 시골에 살았다.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들어오고, 마을 전체에 차는 한두 대이고, 전학년 학생이 50명도 되지 않는 분교에 유치원도 없고 같은 나이 친구들은 4~5명 밖에 없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다.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그때의 사소한 기억들, 근처 산에 친구들과 올라 고사리를 한웅큼 꺾다 오던 기억, 찰흙 수업을 앞두고 끈적끈적한 흙을 구하겠다고 수

십 분을 걸어가 흙을 파왔던 기억, 친구집 대청마루에서 그릇 가득 한 보리밥을 함께 먹던 기억, 찹쌀떡 줄기를 따먹으며 뛰어다녔던 기억...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면 행복감이 가슴 가득 퍼진다. 장흥에 서의 초등학교 생활이 아이들에게 이런 기억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럴 것이라도 믿어 의심치 않기도 하다.

덧붙이는 이야기

-2030년을 살고 있을 미래의 나에게- 정은수

어...안녕? 잘 지내니?

나는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

넌, 12년 전이 기억나니? 광주에 남아 있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장흥이란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었는데. 내가 알기로 아마 넌 그때 엄청 울었었지. 하지만 네 예상과 다르게 이곳 장흥은 엄청난 곳이었고 너는 이곳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게 되잖아.

그럼 진짜 질문!

그 많던 추억들이 기억나니?

아마 기억나지 않겠지.

2030년을 살아가느라 바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써.

네가 그 소중한 추억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해서.

자, 이제부터 너의 10여 년 전 추억들을 들어봐.

*1 네 미래를 바꾸어 놓았을 도서관

장흥공공도서관은 기억하겠지?

너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평생교육강좌들은 너의 방학이 심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보다 조용하고 책들의 보관 상태도 좋았어.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진짜 군민들을 위한 도서관이었지.

네가 작가의 꿈을 갖게 해주었고 말이야.

거기서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어서 상도 받았었잖아.

*2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던 억불산

이건... 산이름을 기억 못 할 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차타고 5분거리에 있던 억불산.

코로나 터지고 새벽마다 열심히 다녔었는데.

나중에는 지겨운지 산에 있는 풀과 꽃에 이름을 붙여주고,

모든 신경을 소리에 집중해가며 다람쥐를 찾았었는데.

다람쥐나 청설모를 한 마리라도 보면 정말 기뻐었고,

코앞에서 보고 귀엽다고 난리를 치고,

아기 다람쥐들이 사는 집을 찾기도 했잖아.
 다람쥐를 찾다가 회색 쥐를 찾았을 때는 정말 황당했지.
 사람을 안 무서워해서 사람이 코앞에 와도 달아나지 않던 새는
 기억나?
 맨날 총총총 뛰어다녀서 너랑 엄마가 ‘총총이’라고 이름도 지어
 줬던 새.
 나중에는 새를 잡겠다고 오르막길에서 엄청 뛰어다녔는데.
 다 잊고 있었던 거니? ㅠㅠ
 괜잖아, 내가 기억나게 만들 거니까ㅎ

#3 0000

여긴 어디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맞춰봐.
 일단...나무가 엄청 많아.
 그 중에서도 향기로운 편백나무가 무지 많고,
 여기에는 숙박시설도 있지.
 너도 여기서 몇 번 잤을 거고.
 그리고... 찹질방도 있어, 소금찹질방.
 소금 위에서 뒹굴뒹굴 하면 정말 기분 좋았잖아.
 산책로와 등산로도 잘 되어있지.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장흥 0000>라고 하잖아.
 이제 알겠어?
 정답은 조금 있다가ㅎㅎ

일단 지금은 이정도 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만 쓸게~

2021/05/03

십 여 년 전의 은수가

(아 그리고 저 위에 *3번 답은 우드랜드야. 기억나지??)

추신. 내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더라고.

최우수상

인생의 끝자락에서 찾은 행복

양정임

+ 너에게 가장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장흥초등학교
네가 3년 동안 다녔고 졸업장을 받은 학교!
어딘지는 기억하겠지만 여기서 있었던 일들은 너무 많아 다 기억하지 못할 거야.

관악부는 기억나?
악기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간식도 주고 연주회도 시켜줬고,
무엇보다 네게 있지 못할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우리의 장흥초는 침착하게 잘 대응했어.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 못지않게 잘 해 주었고,
최대한 학교에 많이 올 수 있게 도와주었지.
아마 그때 너만큼 학교 많이 간 6학년은 없을 걸?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학교생활을 보
내게 해 주었잖아.
이 정도만 말해도 나머지는 너 스스로 기억해 낼 거라고 믿을
게.
부디...네 고향? 장흥을 잊지 말아줘.....(나 뭐하냐)

저는 나주시 다도면에서 살다가 2008년도에 이곳 청정지역인 장흥에서도 유치면, 맑고 깨끗하며 양지바른 소양리에 제2의 등지를 튼 76세 할머니예요.

이곳 장흥에는 연고지가 하나도 없는데 집앞에 흐르는 개울물을 보고 이곳으로 왔지요. 물론 우리고장 다도면도 산새는 좋지만 물이 짧아 이곳 저곳 이 근방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유치면으로 오게 됐답니다.

우리 마을 소양리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마을 중앙으로 냇물이 흐르는 마을입니다.

저희 등지는 마을 앞 큰길에서 산 쪽으로 더 올라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지요. 산속이라 공기가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며 달아, 처음에는 자연이 너무 좋고 마음이 설레 맨 처음 하는 일이 큰 길에서 집까지 꽃길을 만들고자 하고 열심히 만들었지요. 마을 앞 공터에는 조그마한 꽃밭도 만들고 쉼터를 만들기 위해 등나무도 심고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산속이라 자급자족을 해야겠기에 발농사를 짓다보니 길가의 꽃들은 잡초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꽃밭은 지금 컨테이너가 자리잡고 있지요. 잡초 속에 남아있는 꽃들은 제가 지나가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세요' 하고 속삭이지요.

저희 집에 지인들이 놀러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한 번 놀다 가는 것은 좋으나, 여기 살려고 하면 못살겠다고 하지만 저는 심심하다, 외롭다 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이곳 생활은 머리와 손과 발이 바쁘니까요.



천관산의 가을

사면이 산이라 눈이 닿는 곳마다 산새들의 작품으로 이곳 저곳 나무들 사이사이로 산벚꽃이 만개하거든요. 여름에는 하루가 다르게 싱그럽게 변해가다가 가을에는 날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구경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오면 앙상한 가지에 피어난 설화가 장관이고요. 온천지가 눈꽃나라가 되지요.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나부끼며 춤을 추다가 살포시 지면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맞아,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렇게 힘겨워 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슬퍼하지 않고 조금은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자기

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인 양 움켜쥐고 안간힘을 다해 버티면서 살아가기에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언 땅을 뚫고 갓 나온 어린 썩을 캐서 썩차도 만들고, 땡감나무, 어린순 녹차 잎도 따서 감잎차, 녹차도 만들고, 어린 머우잎을 캐다가, 가시오가피 어린순 따다가 장아찌도 만들고, 산마늘잎을 따서 명이나물을 만들고, 각종 산야초를 캐서 효소도 만들고요. 가을에는 땡감, 꾸지뽕, 다래열매 따다가 식초를 만들어야 하구요. 몸은 조금 고달프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지요.

아침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모닝콜 소리에 잠이 깨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날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반기는 광경, 다람쥐가 앞마당까지 놀러오고, 꿩과 노루가 찾아오지요. 여름밤에는 반딧불이 춤을 추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지요. 자연에서는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값없이 나에게 풍요롭고 넉넉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지요.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지천에 먹거리가 널려있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먼저 의술에 의존하여 병원을 찾고 약을 먹지만 우리 자연이 주는 먹거리에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 주는 것을 나누기 위해 지인들을 초대해 자연 밥상을 대접하며 맛있게 먹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

시 덩달아 행복해지고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진답니다.

처음으로 나는 여기서 눈오는 것이 그렇게 멋진 모습인 것을 깨달았답니다. 60년 동안 눈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 보는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하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일자리를 하게 될 때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부 방침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 반장님께 건의하고 반원들이 찬성해서 일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이완시킨 뒤 민요 가락에 맞추어 박수를 치는데, 박수도 우리 손에는 인체가 있기에 관절과 생식기와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박수를 치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가 웃었다가 반복하여 뇌를 운동시킨 다음 본격적으로 웃는데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에게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다'하고 속삭이면서 웃고 난 뒤, 이제 박장대소로 웃는데 가슴을 펴고, 허리띠를 풀고,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마구 웃다가, 기절할 정도로 웃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고르기를 한 뒤 손을 마구 비벼 따뜻해지면 눈에 대고 반복해서 한 뒤 귀에도 우리 인체,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습이지요. 이 귀를 마사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몸·팔·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요. 우리가 언제 자기 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좋은 언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사랑이란 말은 꽃들도 춤추게 하고 물도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게 하며, 밥도 용기에 담아놓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핀다고 하지요.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굳어있는 몸이 풀리고 마음이 상쾌해 진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국민과 우리나라 온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 웃음이 사라지고, 사랑과 온정이 메말라 가는 이 때.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전 국민들, 우리 다같이 한번 호탕하게 큰소리로 마음을 열고, 온 힘을 다해 정신없이 웃어 봅시다.

하. 하. 하. 하. 호. 호. 호. 호. 히. 히. 히. 히. 어떠한가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큰소리로 호탕하게 웃어본 적 있었나요.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번지거든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는 미련하여 '아, 정말로 좋은 일이 있나보다'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팍 팍 나오게 된대요. 어차피 우리의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린 것. 지금 이 순간 순간 웃으면서 즐겁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어서는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들 가르쳐야 했기에 움켜쥐고 모으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이제 나이 먹은 우리들은 하나하나 탐욕도, 욕심도, 욕망도, 시기와 질투도 다 버리는 작업을 잘해야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요.



일출이 아름다운 소등섬

저는 이제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석양에 지는 해가 있는 힘을 다해 서쪽 하늘과 바다를 빨갛고, 아름답고, 황홀하게 물들이며 지듯이, 나의 남은 여생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픈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나무들처럼 자신보다 상대를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자하고 다짐합니다.

저 나무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모진 비바람과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생명의 원천인 땅을, 우리의 젖줄인 물을 누가 오염시켰나요. 소중한 땅이, 자연이 신음하며 아파하는 소리



에 귀를 기울였나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자랑스런 금수강산을 누가 망쳤나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어떤 자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왜 생겼을까요.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나쁜 바이러스가 생길까요.

심각한 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선 자리에서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할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산 속에서 자연에게 비우는 것을 배우고, 받고 누리며 지냅니다. 저희 집은 맨 처음 눈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를 시작으로 봄·여름·가을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다가 마지막 11월에

녹차 꽃으로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모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하고 시름을 달래주어요.

자연은 온갖 만물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우리 사람에게 풍요로움과 기쁨과 넉넉한 마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도우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서 양보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언젠가 뉴스에서 본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네요. 어느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하는 친구들이 서로 달리지 않고 몸이 불편한 친구의 손을 서로 꼭 잡고 나란히 걸어서 들어오는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생각이고 행동인가요.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혼자서는 못살아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지요. 서로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생각만 바꾸면 이 삭막한 사회가 조금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지금, 몸은 비록 여기 저기 고장이 나서 거동은 조금 불편하지만, 항상 마음만은 편하고 행복하며 즐겁거든요.

이 기쁨을 주는 자연에게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우수상

살아본게~ 내 마음의 정원!
장흥이 최고여라!

함윤미

1. 인생1막- 결혼전- 장흥과의 인연 시작

내 마음의 정원인 ‘장흥’과의 인연은 대학시절부터였다.

나는 4년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형제가 많아 전라남도의 지원과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도립대학교(내가 입학할 때는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에 소재/현재는 담양지역으로 통합되었음)에 입학하였고 장흥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부와 총학생 일을 열심히 하며 대학생활을 보냈고 총학생 일을 하면서 장흥이 고향인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학과 커플이면서 대학 총학생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장흥의 유명한 곳을 이곳 저곳 가보면서 맛있는 맛집도 함께 다니는 등 행복한 대학시절을 보냈다. 남편과 나는 졸업과 동시에 도시에 대한 꿈이 있어 상경하였으며 나는 가족 자매들이 있는 경기 부천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남편은 남편의 친척이 있는 경기 남양주의 사업체가 있는 곳에 취직하며 열심히 생활하게 되었다.

서로가 평일에는 거리가 있어 만나지 못하고 주말에 만나는 사이가 되어 헤어지기가 아쉬워 결혼을 하였다. 나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다녔고, 남편은 친척의 사업체인 택배업체에서 일을 했으나 초창기 택배 관련 일은 정착이 되지 않아 일과 업무량도 많아 남편이 탈모가 생기고 건강에 무리가 왔다. 또한 우리 부부는 맞벌이 가정으로 결혼 후 첫째를 낳아 아이를 돌봐주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큰 걱정이었다. 또한 남

편이 장남으로 항상 장흥에 계신 부모님 걱정(농사, 건강)을 많이 해서 고향인 장흥으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2. 인생2막- 결혼 후 출산, 육아, 교육‘내 마음의 캠핑’ 장흥살이

1) 장흥에서 새로운 직업 구하기

8년 전에 남편과 나, 첫째 딸과 함께 장흥에 내려와서 생활하게 되었다.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끌 대출을 통해 집을 지었다. 현재도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통해 대출을 열심히 갚고 있다.

장흥에 내려와서 육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은 시부모님이 근처에 계셔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취직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육아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장흥에 내려와서 둘째 아이도 출산하고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육아 부담도 줄었다. 출근과 퇴근 바쁜시간에는 근처에 사시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교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며 방송통신대 3년제 편입하여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아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안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부부의 권유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힘들었지만 젊었기에 도전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남편도 농협 하나로 마트에 취직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평일에는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바쁜 농사시기에는 퇴근 후 부모님의 논농사, 밭농사를 돕고 바쁜 농사철에는 새벽과 밤을 잊어가며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다.

‘내 마음의 정원 장흥’은 사랑스런 자녀들이 더 좋아하고 있다. 도시에 살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이나 교외에 나가려면 짐 싸다가 하루가 걸리고 엄두가 나지 않을테지만 우리는 집 창문만 열면 넓은 캠핑장소가 된다.



씨앗뿌리기, 모종심기, 물주기



열매따기, 맛보기, 잼만들기

‘장흥’이 ‘내 마음의 정원’과 ‘내 마음의 캠핑’이 되어버렸다. 여름이면 풀장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두 자녀와 친척 아이들이 와서 풀 빌라가 부럽지 않은 장소가 되며 봄·가을에는 현장체험학습장소가 된다.

봄에는 직접 땅을 옅고 씨앗을 뿌리거나 손수 모종을 심어 우리 자녀들의 오감과 감각들을 자극하며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장소가 된다. 여름·가을에는 직접

재배하고 키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보람, 궁지를 우리 아이들은 매년 체험하고 있다. 나도 우리집 창문을 열면 나무와 새소리, 여름이면 매미소리를 들을 수 있어 힐링의 공간이 된다. 자매가 많아 언니들과 지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이 부분이며 도시의 소음, 미세먼지, 황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은 좋은 공기와 살아가다보니 건강해서 늘 감사하다.

2) 장흥의 구경거리와 먹거리의 매력

‘장흥’은 군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구경거리, 먹거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여름이면 ‘장흥 물축제’와 ‘장흥 편백나무숲 우드랜드’가 있어 양가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장흥 물축제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나이드신 부모님들도 좋아하며 ‘장흥 삼합’을 먹기 위해 여름 휴가를 기다린다고 한다.^^



장 흥 물축제 참가



장흥은 가족, 친척들의 휴식처



장흥은 사계절 모습이 다양한 가족의 소중한 체험 장소

우리집 장흥은 가족과 친척들이 2일 이상 모여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정보도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

3) 장흥에서 자녀 키우기(교육환경)

첫째 딸이 돌쯤 되었을 때 아토피가 심해서 걱정이었는데 장흥에 내려와서는 공기 좋고 물이 좋아서인지 아이의 피부 걱정은 자동으로 해소되었다.

또한 집 근처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병원도 여러 군데 있어서 편리하였으며 또한 도서관도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 좋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근처에 있어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기, 운동하기 등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 가족은 생각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근처 학원(피아노, 체육관, 교습소 등)들도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도 장흥은 도시 못지 않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 가족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이후 학원(태권도, 피아노, 한글과 수학 교습소)들을 이용하고 있다.



정남진 도서관-독서교육



학교운동장 개방-가족 운동하기



초등학교-가족체험 프로그램, 학부모공개수업의 날 운영



4) 장흥은 안성맞춤 체험장소



집안 마당에서 할 수 있는 놀이(놀이가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앞마당에 굴나무와 블루베리 나무 심기
-벌과 곤충들이 자연스럽게 날아와서 수정해주어 열매수확의 기쁨

‘장흥’은 사계절이 각 다른 카멜레온, 무지개 같으며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안성맞춤인 것 같다.

어린 유년시절 이런 환경적으로 추억과 체험의 장소를 줄 수 있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한다. 내 어린 유년시절은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딱지치기, 고무줄 놀이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집 안 마

당에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꽃나무와 열매나무(블루베리, 감나무, 굴나무, 칼슘나무 등)을 심고 우리 자녀들이 마당에서 물총놀이와 겨울에는 눈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넓은 마당에 이불을 탈탈 털어놓으면 내 마음의 나쁜 기운도 다 털려 나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언니들은 베란다에 화초를 가꾸며 힐링하지만 나는 꽃과 별, 곤충들이 와서 서로 수정하고 열매를 맺으며 여름, 가을이면 수확의 맛을 나무들을 직접 키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볼 수 있는 나무들을 직접 키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3. 인생3막- 중년기-‘내 마음의 고향’ 장흥살이

내 인생 중년기에 들어 아이들이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장흥 이곳에 계시는 시부모님과 시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영유아기를 어려움없이 큰 도움을 받았다.

내 나이 중년기가 들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시부모님, 부모님, 시할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며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어 안타깝다.

이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흥은 지역사회와 가족을 소중히 여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였으며 우리 가족이 장흥의 덕을 많이 보았다.



KBS-지역 뉴스에 나왔어요(전매청-시할머니께서 99세 장수사연)



시부모님이 장흥군민과 함께 하는 부부의 날 기념식-전통혼례식



시할머니께서 2020년 99세 장수로 지역사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과 방역을 지키며 방송을 했으며 지금도 그 순간 촬영에 긴장과 기쁨이 남아있다.

시할머니께서 그 후 1년을 더 사시고 향년 100세 2021년에 돌아가셨다. 시할머니께서 장수하셔서 우리 자녀들은 시할머니, 시

부모님의 사랑까지 듬뿍 받았다. 시할머니께서 우리집에서 2년 동안 함께 하셔서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다. 시할머니께서 6개월 전까지 거동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원격수업이 있는 날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우리 아이들도 시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한다.

시부모님께서서는 자식들 위해 농사일도 쉬어야 되지만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아직도 논농사, 밭농사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시며 남편이 부모님을 도와가며 잡초제거, 농약살포, 작물 건이 등을 돕고 있다. 남편이 직장일에 틈틈이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등 성실히 ‘장흥 소’처럼 살아가고 있어 안쓰러우면서도 든든하다.

장흥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작은 도시지만 알차고 볼거리, 맛거리,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자녀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입니다.

요즘은 핵가족시대로 2~3명의 가족안에서도 대화가 단절되고 카톡으로 대화가 편하며 하루에 한 끼도 함께 식사할 수 없는 형편, 환경이지만 장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숲이며 넓은 들판, 바다가 눈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여 산과 들, 바다로 나가 함께 체험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장흥은 ‘식구’를 만들어줍니다^^(식구의 뜻 -식사를 하는 같이 하는 사람)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중에 장흥으로 귀농해야겠다, 장흥에 살아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SNS, 카톡으로 먹거리, 체험거리를 올리면 우리 둘째 언니네와 셋째 언니네는 장흥이 더 좋다하고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을 합니다^^

4. 인생4막 준비- 노년기-‘내 마음의 안식처’ 장흥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자주 만난다. 우리시 부모님,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더 간다.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공경하며 그 분들의 인생을 격려하고 싶다.

장흥에는 노인분들이 참 많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로 노인을 위한 일자리·사업·건강·치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장흥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나도 중년기에 이어 노년기가 올 것이며 노년기를 준비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년기에 살기에도 장흥을 딱!! 좋은 장소이다.

전국에 물 좋고 공기좋은 혜택이 많은 장흥이 ‘내마음의 안식처’이며 이곳에서 노년기도 쭉욱 보내고 싶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과 내가 했던 소중한 체험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가족의 힐링장소인 장흥으로 오세요^^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자연의 선물-장흥에서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환경

* 더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장흥을 위한 제언

나는 9년 전 전입으로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최근에 장흥에서 살면 전국최초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주거 지원', '출산자장려금', '귀농지원금', '난임 치료 및 시술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전액지원금' 타 도시보다 지원하는 사업이 정말 많은 것 같다.

'내 마음의 정원'이며 '내 마음의 힐링장소', '내 마음의 캠핑', '내마음의 안식처'인 장흥으로 오세요~^^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앞으로의 '행복을 주는 노년기' 삶도 장흥이 책임져줄 것입니다^^ 어여들 오세요~~~

우수상

일하며 배우며 사랑하며

황인화

누군가가 내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무척이나 당황했던 시절이 있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니 자신감 있게 뭐라 이야기할 것이 딱히 없어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두려워 무언가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마음에 상처는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20대 후반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던 중 우연히 읽은 책이 내 삶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잘 하는 것을 찾으려면 경험해 보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니 많이 배워 보라는 그

런 내용으로 마지막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경험이 재산이다’.

‘그래 나도 기술을 배워 볼까.’ 이왕이면 직업적인 것까지 염두해서 미용 쪽으로 생각을 해 보았다.

그때 마침 미국에 사는 친구가 초청했기에 나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내친김에 미용학교를 등록했고, 헤어·네일·피부 관리를 배우게 되었다. 전 세계 다민족이 모여 각자 배움의 열정을 꽃피웠다. 적성에 피부 관리 쪽이 맞아 졸업 후 자격증을 바로 취득했고, 가정도 꾸렸고, 피부 관리실도 차렸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게를 오픈한다고 걱정을 했지만, 나는 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많은 피부 관리실에 가서 손님이 되어 보았던 경험



을 바탕으로 도전을 해 보자 생각했다.

그냥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손님 입장인 되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렇게 모험이 시작되었다.

일상에 지쳐 나를 찾아온 고객에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음악과 함께 관리실 방안 가득 아로마 향을 준비했고, 나무 족욕기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게 했다.

얼굴 피부 관리를 위한 재료는 최상의 천연 재료를 사용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손수 만든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하였다. 그리고 손수 만든 따뜻한 차를 정성을 다해 내놓았다.

친구 같은 고객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가면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유년시절 아픈 트라우마도 스스로 치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조금씩 가게도 성장해 나갔다.



다른 가게도 운영하면서 제법 돈도 벌고, 바쁘게 생활했지만, 불행하게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차린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빨리 정리를 했다.

문득 도시 생활을 떠나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은 LA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피논 힐스라는 시골로 귀농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시 생활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골 생활은 자연과 함께 조용하고 평온하였다. 밤이면 어두운 배경으로 펼쳐지는 별의 찬란함과 낮에는 푸른 기운이 있는 묘한 한가로움이 주는 신비함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새로움 가득한 신세계였다.

작은 땅을 얻어먹을 것을 손수 길러 먹는 재미가 시작되면서 농사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낮에는 농사짓고 시간 나는 대로 주얼리 수공예 기술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생기면서 수공예 주얼리를 만들어 팔게 되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고국이 그리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품이 그리웠던 것 같다. 또다시 우리 가족은 어려운 결정 끝에 결국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귀국해서 도착해 보니 옛날에는 몰랐는데, 한국이 너무 좋았다. 여기저기 걸어 다녀도 안전했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 인심도 넉넉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하였다.

귀국 짐을 풀고 바로 우리는 몇 군데 미리 생각해둔 지역을 여행 삼아 다니기 시작했다. 여수·광양·고흥·장흥·보성 중 바다가 잇고 산이 있는 곳을 생각했고 자연이 보전되어 있고 시골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몇 군데를 둘러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 시골도 도시도 아닌 풍경, 느낌이 없는 삭막함…….

고흥에서 이틀 예약되었던 숙소 일정을 하루 취소하고 그냥 저녁에 무작정 큰 기대 없이 장흥으로 차를 돌렸다.

늦은 시간 도착해 차를 주차하면서 배가 너무 고파 토요일장 강가 2층 한 고깃집에 들어가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그제야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창밖으로 내다본 강가 모습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그때의 황홀했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소중한 남아있다.

숙소는 노력항에 있는 작은 민박집이었고, 다음 날 다시 장흥읍 쪽으로 차를 돌렸다. 어제 본 장면이 꿈이 아니길 바라면서…….

햇살 좋은 날 예양교 다리에 서서 원을 그리듯 그 자리에서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둘러보아도 병풍처럼 산이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어 푸른 생명이 감도는 장흥이 참 포근해 보였다. 마치 어머니 품처럼…….

자연이 살아 있고, 시골이 살아 있고, 인심이 살아 있는 내 사랑 장흥에 반해 귀농 정착지로 결심하고 터를 잡아 이제는 어엿한 장흥 군민이 되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어머니도 어릴 때 살았던 것처럼 시골이 살아있다면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시고 장흥읍 작

은 시골집으로 귀촌하셨다.

여수 오동도 섬이 고향이었던 어머니는 부산 객지 생활을 접고 시골 인심 가득한 이곳에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셨다.

원래는 아버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구했는데, 이사 오기 며칠 전 아버님은 우리들을 놔두고 새벽에 주무시다 말없이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지금 어머니는 다행히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움직이고 좋은 공기와 함께, 같은 나잇대 할머니들과 이웃하시면서 정말 건강해지셨다.

나 역시 이제 몇 해가 넘어가니 정착을 했고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도 생겼다. 그리 넉넉지는 않은 살림이지만 뜻이 맞는 몇 분을 만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간다. 눈이 보이지 않아 밥을 해 먹기 힘든 분, 곁에 친구라고는 그림자 밖에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외로운 할머니, 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어린아이만 사는 집... 그런 분들과 인연을 맺어 그들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있다.

주로 필요하신 것을 물어보면 의외로 생활필수품을 많이 말씀하신다. 비누·세제·치약. 나는 10년 이상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재료를 천연 재료를 사용했기에 아픈 분께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천연 제품 만드는 회사에 연락해서 디자인이 좀 지난 천연 제품이라도 괜찮으니 좋은 가격에 줄 수 있는지 의뢰했더니 다행히 희망하는 가격에 받아서 너무 기뻐다.

집 창고에 가득한 천연 제품을 보면 왠지 마음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근래에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하며 배우며 사랑하며”이다.

친환경 생태적 삶을 추구하면서 농사를 짓고 세상살이를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귀농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예비 귀농인을 위해서 나의 작은 소견을 적어 보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두 번의 귀농에서 귀농이란 살고 있는 집이나 직장의 전환이 아닌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이라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큰 계획도 마케팅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한 일은 식물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였다.



우수상

어머니 품 같은 장흥에서
엄마로 사는 행복

강윤희

식물이 먼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 방법으로 실천하고 연구하고 다가갔더니 어느 날 우리 부부는 식물과 교감하는 아름다운 농사를 짓고 있었다. 땅심이 살아 있고 미생물이 살아 있는 그런 농사를 하고 나서는 자신감을 얻었고, 흙의 향기를 사랑하는 그런 농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았다.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는 안전한 먹거리를 갈망한다. 세상에서 제일 큰 투자는 주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식단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조금 덜 벌더라도 자연과 함께하려는 움직임이 입증이라도 하듯이 고학력자, 전문직, 젊은이들이 귀농 귀촌을 생각 하며 유입층이 변하고 있다.

막연히 농사나 할까 이런 도피성 귀농이 아닌 농사도 하면서 또 다른 자아를 실현하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추세이다.

요즘 시골 구석구석 인터넷이 없는 곳이 없다. 인터넷으로 집안에서 상품은 물론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별 지식도 유튜브 브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수입 창출이 가능한 세상이다.

도전하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

끝으로 나는 우리 장흥이 머지않아 이런 모습으로 더 가꾸어지기를 상상한다.

광주나 목포에 있는 도시인들이 자연을 찾아 굳이 강원도나 설악산이 아닌 전남 장흥에 방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에 기대어 힐링하고 충전할 수 있는 어머니 품속 같은 울창한 숲속이 되기를...

지금 내 옆에선 태어난 지 두 달이 갓 지난 둘째가 잠들어 있다. 이 아이를 갖기 위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각하니 더욱 귀하고 예쁜 내 아이.

오랜 시간 둘째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주변 사람들은 첫째가 있으니 직장생활에 집중하며 아이 하나를 잘 키워보라고 위로와 충고를 하기도 했다. 둘째 임신이 점점 포기하게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나면 족하다는 여성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나는 왜 둘째, 셋째를 꿈꾸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끝엔 아빠와 탐진강을 산책하며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이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아들은 장흥의 자연환경을 좋아한다. 가족이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장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장흥에서 만든 귀한 추억들.

‘그래. 맞아. 장흥이라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에 살아서 내가 다둥이 엄마로 살고 싶어지나보다.’라고 결론지어졌다.

나는 장흥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생활, 취업으로 인해 10여년 동안 장흥을 떠나 살았다.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 살았기 때문인지 보통 도시 생활을 선호할 나이인 이십대 중반의 나는 장흥에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로 직장을 옮기며 장흥살이를 시작했다.

동료들과 함께 수영을 배우고, 지인에게 기타를 배워 연습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 탐진강을 걸으며 삶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도 즐겼다. 도시와 버금가는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도시 친구들에게 자랑하니 장흥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는 사람도 생겼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디에 마련해야 할까?’ 고민하던 나에게 장흥에 살자고 신랑이 먼저 말을 꺼냈다. 타지역에서 생활하던 남편은 장흥에서 데이트하면서 장흥이 좋아졌다고 했다. 산과 들, 강, 바다가 모두 어울어진 곳에서 산다면 마음이 여유로울 것 같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이 잘 자랄 것 같다는 이유였다.

남편의 생각은 적중했다. ‘체험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는 교육철학을 가진 남편은 아들과 지금까지 장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

남편은 아들과 주말이면 억불산에 올라가며 돌탑을 쌓고 들꽃을 살피며, 고사리·취·밤 등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곤 한다. 아빠와 손잡고 정상에 올라 장흥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감사함을 배우는 아이.

또 갑자기 냄비와 휴대용 가스렌지와 라면을 챙겨 바닷가로 달려가 바다 생태계를 체험하고 노을을 바라보며 뜨거운 라면을 먹는 행복의 맛을 어린 시절부터 알아버린 아이.

그리고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탐진강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돌다리를 걷고, 레이저 물 쇼에 춤추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를 배우고, 킥보드를 익히며 아빠 엄마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아이.

여름밤이면 온 가족이 수박을 썰어 돛자리를 들고 찾아가는 우드랜드에서 폐와 피부에 건강을 더해줄 피톤치드 속에서 숨 쉬며, 도시에 사는 어떤 아이들보다 좋은 아지트에서 장흥을 즐기며 살아가는 아이. 빌딩 숲속이 아닌 집 앞 산책로에서 산새들의 울음소리와 다람쥐를 매일 만날 수 있는 아이.

컴퓨터와 휴대폰 없이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준 내 고향 장흥에서 살고 있었기에 나는 자식 욕심이 생겼던 것 같다.

4년간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에 우연히 찾아간 장흥군보건소에서 난임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에 대해 들으니 욕심이 생겼다. 친절한 담당자분의 도움으로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병원을 선택하고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2020년 5월, 장흥군의 지원으로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던 찰나에 우리 둘째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찾아와주었다.

자연임신이 된 후 임신부 등록을 하니 보건소에서 부지런히 연락이 왔다. 매달 엽산이며 철분제를 제공 받았고, 마스크며 임신 축하 선물, 임신초기검사 등 많은 지원에 더욱 알찬 임신 기간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장흥군민임이 더욱 뿌듯했던 것은 아이를 출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조리했을 때였다. 장흥군민인 나는 공공산후조리원 2주 조리비용 154만원 중에서 108만원 정도를 감면받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조리를 마쳤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장흥의 복지혜택이 대단하다며 부러움과 함께 “아이를 낳으려면 장흥으로 가야겠구나. 출산지원금도 좋고.”라며 칭찬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보건소에서 출산 선물이라며 장흥한우과 키조개, 미역을 보내주셨다. 새롭게 장흥군민이 된 우리 아기와 그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하는 군민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으니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

다음 세대를 향한 장흥군민들의 정성과 염원을 힘입어 태어난 우리 둘째는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날 것이다.

아이들을 재우고 신랑과 장흥군민으로서의 삶에 대해 가끔 이야기한다. 고향이 장흥인 나는 장흥이 익숙하지만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후에 장흥에 정착한 남편의 생활은 어떨까? 남편은 말한다.

“사실 도시에 비해 생활이 단조롭고 쇼핑이나 문화생활이 힘든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이를 건강하고 밝게 키우는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 자연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인생을 멀리 보고 깊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이 보기에 행복한 삶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첫걸음을 함께하기에 장흥은 참 좋은 곳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물리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재산은 다르다. 한결같이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고 구불거리는 인생의 곳곳에 숨겨진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다. 그런 배움의 끝에 아이들의 성품과 인품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생활터전의 환경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배경이 될 장흥을 좋아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이제는 그 가정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그로 인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군민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흥군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요즘 몸소 체험하고 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땅. 예로부터 지역 사람들이 좋기로 소문나 타지에서 이사와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좋다는 인심 좋은 지역 장흥.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 장흥을 많이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2021년 봄 억불산 정상에서



2020년 겨울 탐진강에서

2020년 수문 바닷가에서



우수상

장흥에서 잘 살아보드랑께~잉

윤순정

안녕하세요. 딸기 농사 귀농 4년차이자 17개월 귀염둥이 아들의 엄마입니다.

귀농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랑과 함께 2년 동안 난임 병원을 다녔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우울한 시기였기에 ‘시험관 시술’ 단어만으로도 생소하고 힘들었습니다.

2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며 두 번의 실패와 좌절, 경제적으로 들 다 지쳐 포기하려 할 때 신랑이 어느 날 저에게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직장 스트레스며, 앞으로 우리 아이의 환경 때문에라도 우리 장흥으로 내려가자.’

장흥은 신랑의 고향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귀농은 너무 싫었습니다.

신랑이 저를 타이르고 달래어 결국 2017년 7월 더운 여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귀농한 지 첫해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의 친구도 나의 친정 식구들도 옆에 없으니 더욱더 우울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지으며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신랑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딸기 농사를 해온 일이지만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저입니다. 그런 저와 신랑은 의견 차이도 심했고, 1년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소한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귀농한 지 1년이 지나고 서로가 적응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 아기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난임 병원에 다시 가보자. 장흥군에서 도와주는 혜택도 있어. 우리에게 힘이 될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저는 상처가 커서 두려웠지만 신랑이 간절하고,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기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장흥에서 거리상 가까운 난임 병원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 장흥군에서 지원해주는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장흥군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혜택도 최고입니다. 임신 전에는 가임 여성 풍진 검사와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 임신 중에는 엽산 제공과 임신부 산전관리, 고위험군 임신부 의료비 지원, 영양 플러스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영양 플러스 혜택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양 플러스는 임신부, 영유아가 대상이고, 저는 임신부여서 임신부에 해당하는 요리 재료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지급해주니 꿀 혜택이랍니다. 무심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배려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등을 통해 영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식생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년 동안 매달 짠한 감동의 요리 재료로 끼니 걱정 없이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산후도우미 지원 중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혜택을 선택했습

니다. 산후조리 덕분에 출산 후 빠른 회복을 하고 살도 쪼였습니다. 조리원 밥이 맛있었습니다. 최고!!

대망의 출산 혜택의 기쁨은 출산축하금입니다!!

장흥군은 출산축하금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서 출산하기 좋은 장흥이지요. 힘들었던 나날들이 장흥군에서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지원 사업이 많으니 보건소나 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저는 난임 병원 다닌 횟수가 5회이고, 다섯 번째 울 아가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장흥에서 지원받은 횟수는 총 3회인데 진짜 실패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낼 때까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또 보건소에 찾아가 지원 신청할 때마다 응원 한마디씩 해주셨던 주사님들! 저에게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처받은 난임 부부들에겐 정말 힘이 된다고, 힘이 되었다고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흥군의 힘찬 지원 덕분에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2019년 11월 27일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날입니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보물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참고로 태교에는 장흥만한 청정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거기다 맛있는 특산물까지~ 저 태교하면서



저희 부부가 농사 지은 딸기여라~ 달콤달콤♡
 울 아들이 태교 때부터 먹은 무농약 딸기랍니다.
 딸기청도 맛있답니다.
 지금은 하우스로 출근 도장 찍고 울 아들 놀이터예요~
 정겨운 시골♡

한우 한 마리는 먹었습니다^^

장흥군의 무궁한 발전과 다양한 혜택들이 많아 귀농, 시골살이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신랑에게도 무한 칭찬해주었습니다.

또한 장흥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평이 좋아 교육적인 환경에도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저희 부부가 장흥이라는 청정지역에서 살고 있고, 우리 아기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푸르른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탐진강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뒤적거리려 봅니다.

웃음이 나네요.

즐거운 장흥 살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 무엇보다 앞으로도 장흥에서 행복한 인생의 서막~!

울 세 식구의 즐거운 시골살이가 될 듯합니다.



장흥 맛집 굴구이랑 닭갈비~ 이 맛에 시골에서 사나봐요^^



숨은 명소 벚꽃길♡
용산 딸기 하우스 가는 길
강가 쪽에 활짝 피었어요.
우리 꽃길만 걸어요*^^*



우수상

오메 내 강아지!!

윤여미



푸르른 하늘, 갬성돔아요~♡
우리 개린이도 좋은가 봐요!!
걸음마 연습은 역시 탐진강이 최고!!!
지금은 뛰어다닙니다^o^
장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난 결혼 안 하고 세계를 여행하며 혼자 살 거야.”

라고 외치던 내가 대한민국 남쪽의 끝(정남진)으로 시집을 오게 될 줄이야!

장흥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끝까지 달리면 친정집이 나온다. 처음 장흥 시택에 인사를 드리러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명절이라 차가 막힐 것을 예상해 친정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지만 거의 10시간이 걸려 도착한 장흥에서 처음 나를 맞이한 건 오후 햇살을 머금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탐진강이었다. 그 순간 10시간 동안의 피로는 순식간에 씻겨 나가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만나게 된 시외할머니, 처음 나를 보시자마자 “오메 내 강아지 왔냐?” 하시며 손을 덩석 잡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른다. 친정에는 조부모님들이 전부 돌아가셔서 “할머니”란 호칭을 불러 본 게 거의 십수 년 만이었다. 그리고 “강아지”소리를 들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도시에서의 나는 차갑고 도도한, 차도녀 영어강사였다. 특히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던 내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흥이란 곳으로 시집을 간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다. 다들 처음엔 믿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진짜 결혼하는 거야?”

“진짜 그 먼 곳에서 네가 살 수 있을까?”

“도시에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려고?”

처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주변인들은 축하에 앞서 걱정 섞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도시에서의 삶이 익숙한 나에게 장흥에서의 삶이 과연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찌면 당연했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됐다.

그렇게 4대가 함께 하는 시대, 장흥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장흥에서 맞이한 첫 계절은 겨울이었다. 확실히 친정보다는 따뜻한 날씨에 놀라며 시작된 신혼생활.

도시의 핵가족 문화에 익숙한 나는 결혼과 동시에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우선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하며 살던 내가 “아내”, “며느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처음 장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어찌다가 이 먼 곳으로 시집을 왔냐고 물었다. 사실 내 인생 계획에도 결혼은 없었고, 더군다나 이토록 먼 곳으로 시집을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처음 장흥에 도착했을 때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시는 시외할머니의 손길과 시택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형제분들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환대에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지금, 내 옆에서 굳히

잠을 자는 딸을 보고 있으면 어찌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돌아 내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장홍 생활의 시작은 주변 분들의 친절함과 정을 느끼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봄이 되면서 나는 장홍의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빠지게 됐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기였다. 이곳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나 여행이 자유롭지는 못했으나 이미 집 주변, 장홍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딱히 유명한 관광지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명소였기 때문이었다. 장날이면 토요일 시장에서 장을 보고 탐진강 주변을 운동 삼아 걸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장홍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처럼 탐진강은 햇살을 머금고 눈부시게 반짝였고 강 주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가끔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음미하기도 했다.

결혼 전에 나는 전 세계 여행을 목표로 하는 배낭여행자였다. 따라서 정말 많은 곳들을 여행했고 이 세상의 많은 절경들을 가슴에 담았다. 영어 표현 중 'Been there, done that' 이라는 말이 있다. 결혼 전에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새로운 곳이 없다며 앞서 언급한 영어 표현을 농담처럼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일상 중에 이토록 자연의 아름다움을 크게 느낄 줄은 몰랐다. 장홍 토박이인 남편은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남편에게 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당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다.

아름다운 꽃들은 시댁 앞마당에서 잔뜩 피어났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지고 여름이 오면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무화과라는 과일이 매우 특이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무화과나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시댁에서 처음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이 과일은 특이하게 꽃을 피우지 않고 과일이 바로 열린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정성으로 시댁의 과일 나무들은 무럭무럭 커 나갔고 장홍으로 시집 온 첫 해 여름 정말 과일은 실컷 잘 먹으며 태교를 할 수 있었다. 예쁜 복숭아처럼 예쁜 딸이 태어나기를 기도하며 여름을 보냈다.

이상하리만큼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나무는 오색찬란한 변신을 하게 됐다. 집 주변의 나무들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보자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 마음을 달래주듯 집 근처의 휴양림에서 휴식을 취할 때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변한다는 사실은 늘 놀랍다. 특히 임신 중에는 시간의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가의 존재는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자 기쁨이었다.

뱃속의 아기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아가도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장홍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겨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뱃속에 있을 때 입체 초음파를 찍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 아이의 제대로 된 얼굴을 볼 수 없었



기에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컸던 상황이라 아이의 탄생이 보다 반가웠던 건 아닐까 유치한 생각도 해 보았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태어난 아가는 너무도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우리 부부에게 왔다.

아이가 태어나고 정작 아이의 부모인 우리 부부보다 집안의 어른들께서 더욱 기뻐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특히 올해 아흔세 살이신 시외할머니께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의 결혼이 소원이었고, 그가 결혼을 하자 남편의 자식을 한 번 보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다는데 진짜 소원 이루신 것처럼 기뻐 주셨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흥에서는 처음 결혼

을 하고 이곳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때부터 주변 분들께서 진짜 가족처럼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을 축하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 감사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온 세상의 축하를 다 받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소중한 아이와 함께 시작된 장흥에서의 삶이 매우 기대된다. 마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사는 마음으로 장흥으로 시집을 왔고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내 인생 2막은 성공적으로 시작됐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4대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될 줄 몰랐고 이토록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가정을 가꿔나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하지만 이곳 장흥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매우 기대된다. 앞으로 더욱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란 희망찬 기대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백 년 가까운 세월을 살고 계신 시외할머니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사람이 태어나서 새끼가 발롱발롱 크는 게 쫄로 재미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이 이 짧은 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많다. 백 년 가까이 이 세상을 사신 분께서 말씀하신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엔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지금도 내 무릎에 앉아 글쓰기를 방해하는 내 귀여운 아이를 보면 조금은 알 것 같다.

그 말씀의 뜻을.

적어도 ‘발롱발롱 크는 내 새끼’가 주는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쯤은 아주 어렵פות이 알겠다.



우수상

쌍콩이 | 아가씨에서
장흥댁으로 거듭나기

김여진

“아저씨, 이 버스 장흥으로 가는 거 맞나요?”

2007년 12월 마지막 날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전남 장흥으로의 근무 발령을 받고 광주에서 ○○고속 장흥행 버스를 타고 오는 1시간 반 동안 기사님께 몇 번이나 도착지를 물어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4년이란 시간이 흐른 걸 보면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스물 여섯... 대학 졸업 후 마음먹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약 2년간 열심히 독서실에서 생활한 것 외 다른 사회 경험은 전무 했던 옛된 아가씨가 지명도 위치도 생소한 난생 처음 들어본 장흥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 혼자 버스를 타고 출발한 그날, 봄철의 왕벚꽃 같은 눈이 소복소복 참으로도 많이 내렸더랬다.

차만 타면 잠이 드는 내가 아무리 가도 가도 버스가 자꾸 꼬불 꼬불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에 기사님 바로 뒤에 앉아 안절부절 했던 기억에 웃음이 난다.

장흥... 광주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장흥이란 곳은 참 낯설고 어색한 동네였다.

그래서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장흥에서의 근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매일 버스로 광주에서 장흥까지 출퇴근을 하였고, 근무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오면 다 큰 아가씨가 엄마를 붙잡고 일하러 가기 싫다고, 장흥 싫다고 한참을 뽕뽕 운 적도 많았다.

그렇게 약 100일 정도가 지났을까... 매일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는 일이 점점 힘들워졌던 나는 장흥읍에 어느 노부부가 사시던

주택의 작은 상하방을 빌려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 잠에 빠져들 무렵, 누군가가 대문을 쿵 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아주머니께서도 잠에서 깨어 밖을 살펴보신 후 내 방문을 두드리시면서 “아가씨 괜찮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대문을 건드렸나 봐, 놀라지 않았어요?”라며 토끼눈이 된 나를 달래주셨고, 이후로도 딸처럼 챙겨주신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장흥도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다.

출퇴근을 할 때에는 사무실 외 다른 곳을 가 볼 기회가 없었기에 장흥에 대해 거의 알 수가 없었는데, 자취를 시작하면서 퇴근 이후 운동 삼아 처음으로 천변을 거닐던 그날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살랑살랑 생명력이 느껴지는 봄바람에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줄기, 두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드넓은 초록 잔디밭 위 알록달록 아기자기하게 심어진 어여쁜 꽃들까지... 일을 하러 온 곳이 아닌, 휴양지에 쉬러 온 느낌이랄까.

그 기분에 도취되어 혼자 실실 웃으며 두어 시간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장흥에 정이 가지 않는다며 근무가 끝나면 광주로 떠나기 바빴던 나는 자취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설득해 장흥으로 오도록 하여 광주가 아닌 장흥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3년 터울로 아이들이 둘이나 태어나 작은 방에서는 도저히 키우기가 어려워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아이들이 뛰면 행여 아래층에 피해가 갈까 늘 “조용! 뛰지마!”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래층에 사시던 어르신께서 “아이들은 원래 뛰면서 크는 것이고, 우리 애들도 다 그렇게 컸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쥐어 주신 일이 있었다.

층간소음에 칼부림까지 나는 세상인데 그 따뜻한 말씀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친정아버지처럼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위층에 사시던 사모님(지금은 그 곳을 떠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왔지만 아직도 언니 동생하며 늘 뵙는다^^)은 어린 애들을 데리고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사는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시시로 반찬을 나누어 주시고, 아이들도 대신 봐주시는 등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 주셨다.

자취를 할 당시의 주인집 아주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품고 살았던 그 아파트의 어르신, 윗층 언니 등등... 장흥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인간적인 정을 흠뻑 맛보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로 마음 한켠에 늘 자리잡고 있다.

그렇게 한분 한분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즐겁게 살아가던 중 2019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어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두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어야 했던 당시, 충격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웠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멀리 있는 가족이 아닌 장흥에서 알게 된 이웃의 언니들이었다.

행여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주고 함께 점심을 먹어주고 무심한 척 아이들 반찬에 남편이 먹을 음식까지 챙겨준 고마운 언니들이 아니었다면 그 혹독한 인생의 광야같은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다행히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건강을 되찾은 현재 늘 언니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툼툼이 억불산, 천관산을 등반하며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철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에, 언제나 나가면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천변까지... 바쁘게 일만 하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미쳐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아왔지만 건강을 회복한 지금은 내 주변 곳곳에 깃들어있는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장흥이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곳이었나’ 매번 감탄하는 중이다.

아이들이 다 크면 남편과 나는 장흥 어딘가에 작은 집을 짓고 식물과 흙을 벗삼아 늙어가자며 벌써부터 재잘재잘 남편과 뭘 준비해야 될지 의논하느라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따금씩 “발령 받으면 다시 광주로 갈거야?”라고 언니들이 물을 때 장흥이 싫다며 울었던 썩렁이 아가씨였던 내가 이제는 마흔 살 중년 아줌마가 되어 ㅋㅋ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언니, 장흥댁이 가긴 어딜가요? 핑~생 언니들이랑 여기서 살아야지!!”





장려상

정감이 느껴지는 장흥살이

김미선

광주에서 살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장흥서 거주한 지 2년 남짓, 처음 전남 장흥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시골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밭·논만 있고 나만의 여가생활, 취미생활 또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부족할 것 같아 내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려오니 광주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를 느낄 수 있었고 나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장흥으로 내려와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읍사무소에서 선물과 장흥 바로 알기 투어 지원을 해주었다.

장흥에 볼 것과 놀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편백나무 숲에서 하루 숙박할 수 있는 쿠폰도 있었지만 임신과 출산에 맞물려 사용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회가 돼서 숙박을 했었다면 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았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니 결혼축하금을 또 따로 받아서 여유롭지 못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임신을 하고 알아보니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임신부 등록을 했더니 임신부 뱃지와 브라운 체온계를 선물 받아왔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뱃지만 받는다고 들었는데 선물까지 받아오니 기분도 좋았고 필요 없는 선물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많이 쓴다는 체온계를 받으니 장흥군에서 육아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여가 생활 중 가장 좋은건 영화관이었는데 사실 장흥엔 영화관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영화를 보러 목포·광주까지 나가야 될 줄 알고 남편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 나가자라고 말을 못했는데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 남편에게 말했더니 장흥에 영화관이 있다고 해서 가 보았다.

목포·순천 영화관 부럽지 않게 장흥도 스낵, 팝콘도 팔고 유행하는 영화들을 조금 더 싸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자리 배치도 널널해서 임신부인 나도 너무나 편하게 볼 수 있어 좋았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않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한번 영화관에 가 보고 싶다.

출산 전 장흥 맘카페를 알게 되어 가입하여 보고 있는데 사소한

물건들의 나눔, 아이들이 커서 이제 물려줘도 되는 물건들을 팔고 사고 나눠주는데 너무 비싸게 팔지도 않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맘카페에서 아이 침대와 이불, 옷 등을 받을 수 있었고 받아오면서 엄마들과 인사하고 나이대가 같으면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럴 수 있어 좋은 카페였다.

아이들의 경우 너무 빨리 크고 잠깐 쓰고 필요없는 물건들이 많은데 새로 사려면 너무 값이 비싼 제품들이 많아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이런 맘카페를 통해서 나눔을 받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 출산 전 아이를 위해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또 엄마들이 좋은 게 무료로 받아가고 문고리에 식빵, 아기과자 등 선물을 주고 가서 오고가고 하는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타지에서 오게 되면 아는 사람이 없고 직장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인맥을 쌓기가 어려울텐데 좋은 카페가 있어 인맥도 쌓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같은 개월 수의 아기들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외로움이 많이 없이 지낸 2년이였다.

그리고 장흥 맘카페에서 장흥 장난감 도서관을 알게 되었는데 연회비를 내고 장난감을 2가지 2주를 빌려도 준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장난감뿐만 아니라 고가의 바운서, 모빌 등 신생아 때 잠깐 쓰는 제품들도 같이 대여를 해주고 있어서 장흥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너무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장흥에서 살기 너무 잘한 것 같다,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 출산 후 가장 좋았던 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다.



전남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의 지원, 솔직히 타 지역에 산후조리원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사실 조금 망설여지게 되는데 장흥군 보건소에서 막달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서류를 작성해줘서 미리 예약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설명을 듣고 예약을 하고 금액을 보면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시설이나 복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부담이 가는 사람에겐 매우 좋은 지원이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여기서 가까운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되면서 면연력이 약한 산모나

신생아 감염 우려로 인해 2020년 2월 쯤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았지만 해남·완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더 감사했다. 또 장난감 도서관에서 소독도 너무 철저하게 해주셔서 믿고 빌려 쓸 수 있고 같은 장난감을 연속으로 빌릴 수 없는 규칙도 좋은 게 한 사람이 2주를 빌리고 또 2주를 빌리면 한 달을 빌리게 되어서 빌리고 싶은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게 되는데 2주를 빌리고 중복되게 빌릴 수 없어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가는 규칙이라 너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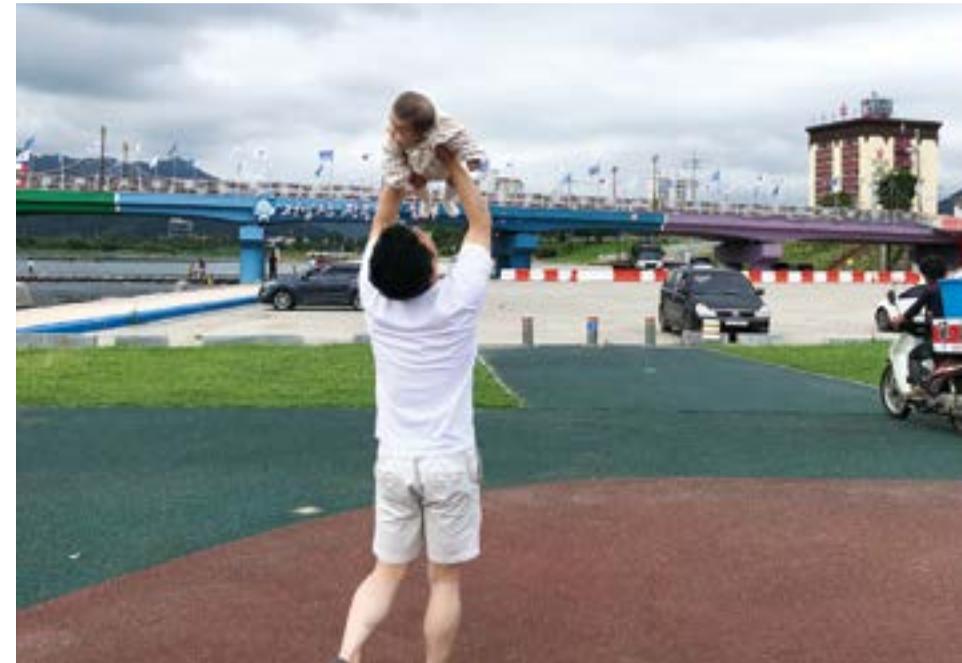
장흥 탐진강을 가보면 이쁘게 꾸며져 있어서 아이와 산책을 하기도 좋고 예쁜 사진을 기록할 수 있어서 날이 좋은 날 자꾸 나가



게 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꽃들이 심어져 있어 아이에게 색을 알려주고 꽃이름도 알려주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발지압판도 있어 촉감 놀이처럼 맨 발로 함께 걸으며 아프다, 간지럽다 등 알려주고 있다. 희망의 종도 있어 같이 소원을 빌고 종을 치면서 산책을 하다보면 아이에게 자연에서 오감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탐진강을 자주 찾는다.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킥보드, 공놀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잘 해놨고 풀도 나무도 많으며 쉬는 공간도 많이 있어 아이와 피크닉 가기에 무척 좋다.





텐트를 쳐서 놀다가 텐트에서 낮잠도 자고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고 멀리 가지 않더라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

코로나로 지금은 시행하지 않지만 여름엔 장흥물축제가 있다고 들었고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보았는데 축제를 하면 여러 행사도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도 만들어주는 사진을 보았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아이와 함께 장흥의 여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작년 겨울 장흥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았는데 도시에선 할 수 없던 일인데 썰매를 직접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도시는 만들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집에서 만든다 하더라고 소음으로 신고를 많이 하기에 만들기를 할 수 없는데 장흥엔 공터도 많고 또 아이와 함께 썰매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사람 살기 참 좋다는

걸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남편과 함께 나무를 사서 똑딱 똑딱 만들어서 순지에 얹어 있는 길목, 대덕에 마을회관 앞 얹어있는 길목에서 썰매를 타면서 아이와 너무 좋은 추억을 쌓았고 잊지 못할 겨울을 기록했다.

이제 봄이 되어 아이와 함께 놀러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더니 '하늘빛수목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4월엔 툄립축제도 한다고 해서 아이와 같이 가보았다.

장흥군민은 할인도 해줘서 더 기분 좋게 입장하고 형형색색의 꽃과 닭, 공작, 양이 있어 동물까지 같이 구경할 수 있어 1석2조로 보고 왔고, 뒤로는 편백나무숲까지 있어 장흥의 자랑 편백도 같이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장려상

고향에서 얻은 건강, 행복

위필수

사진도 무척 이쁘게 찍을 수 있게 포토존도 많이 있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이쁜 곳이었다.

임신했을 때 가볼 때와 아이와 함께 가볼 땐 정말 느낌이 달랐고 '하늘빛수목원'은 여름과 겨울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서 아이와 함께 추억을 쌓아봐야겠다.

이처럼 장흥에 내려와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정을 주고 받고 하다보니 도시보다는 정감이 있는 시골의 정이 너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많이 보고 정착해서 살아가면 좋겠다.

토요시장만 가도 너무나 많은 정을 느낄 수 있다. 할머니들이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꾸준히 나오셔서 나물, 콩을 파는데 1-2천 원이지만 5천 원의 양만큼 주시고 가격도 착한데 더 주시니 너무 죄송한데 아이랑 같이 가면 옆에 있는 할머니도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꺼내주실 만큼정이 많은 걸 느낄 수 있다.

장흥에서 살아가다보면 정말 생각도 못하게 많은 정. 좋은 추억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고, 2년 동안 무척 좋았으며 앞으로도 아이와 남편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잘 살아 보자고 무작정 상경했을 때가 벌써 5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요즘 유행되는 노래 보릿고개를 탈피하고자, 이 가게 저 가게 이 공장 저 공장을 옮겨 다니며 배꾸리를 채웠던 그 시절, 그때는 노동법도 인권도 모두가 캄캄한 세상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본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 자고 일해야 되나 어리지만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쉬는 “술집” 홀에서 일하기로 했다. 저녁 6시경부터 23시까지 일하고(당시엔 통행금지가 있어 대부분 23시까지만 영업을 했음) 낮에는 쉬기 때문에 학원에 다녔다. 그러기를 2~3년 그 일도 여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술장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었다. 취객들의 저녁마다 싸우는, 어떻게 보면 꼭 전쟁터 같은 느낌마저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이 17~8세에 술과 담배를 벗 삼을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이 아니던가. 건강은 몰라보게 약위어가고 서울 생활이 마치 지옥과 같이만 느껴졌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건강을 찾고자 경기도에 있는 사찰로 수양의 길을 떠났다. 달 밝은 밤에 휘영청 떠있는 달을 보며 향수에 젖었고 새벽에 목탁소리 염불소리는 어찌 보면 내 구곡간장을 찢는 듯 들리기도 했다.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신흥사 절에 다녔을 때 들었던 목탁·염불 소리가기에..... 그럴 때면 더 가슴을 파고드는 아픔, 11세에 어머니 잃고 15세에 아버지 잃고 소히 말하는 조실부모(早失父母)의 아픔이 목탁과 염불에 실려 내 귓가를 후벼 파는 것에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초



등학교 겨우 졸업하자 조실부모하고 감독없는 선수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니 난감할 수밖에.....

고향에 내려가고 싶었으나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고향에 가나 한편으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가 건강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책 내용에는 내 몸이 병들고 아프면 고향으로 내려가 고향의 반경 4km내에 있는 채소 등을 섭취하라는 내용이 있어 자존심이고 뭐고를 떠나 고향으로 달려갔다. 친구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후배들도 결혼하여 사는데 나는 형수님의 밥을 먹고 내 병 치

료에 여념이 없으니 스스로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몇 번이고 묘한 생각도 수 십 번 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보아왔던 아름다운 강 탐진강·제암산·사자산·역불산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좋다고 하는 약초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채취하고 탐진강에서 고기도 잡아(탐진강 고기는 친구 후배들이 잡아주었음) 다려서 복용하기 시작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고사성어를 생각하며 내 나를 최선을 다했다. 건강을 찾아 하늘이 나에게 준 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발휘하여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재능기부를 하자는 생각들이 나의 뇌리를 요동친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의 건강은 생기를 얻는 것을 분명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자칫 건강에 자만할 것 같아 마무리 차원에서 용산면에 있는 작은 사찰(寺刹)로 가서 2년 정도 내 스스로 각본을 짜서 건강을 찾기 시작했다. 부용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부도 하고 승려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지금의 우리 장흥군 슬로건이 '맑은 물 푸른 숲'인데, 그 맑은 물과 푸른 숲의 도움으로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건강상태로 돌아옴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고향의 모든 사물들, 자연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다. 만약 내가 고향으로 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있었을까 하고, 그러면서 나를 다시 재생활 수 있게 해 준 고향을 위해 열심히 살자고 다짐을 했다. 그러나 몇 년의 공간이 녹록치 않았다. 30세가 된 내 나이,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러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80년대 그때 30세면 노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잊고 일과 공

부에 나를 맡겼고 결과는 어느 통신회사에 근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맞선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동안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야 빛을 보나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젖노라니 쓴 웃음도 나고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무정함도 맛보면서, 삶의 끈을 단단히 조여갔다.

그리고 기어이 결혼에 성공했다. 1986년 12월 28일!

나로서는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었다. 드디어 나도 가정을 갖는다니 꿈만 같았다. 사글세 방에서 연탄불로 모든 난방을 해결했고 통신회사에 근무하면서도 10년을 전화도 없이 살았다. 그동안 아내의 고생은 어떻게 얘기하기도 미안할 정도였으니, 가끔은 내가 어렸을 때 노닐던 탐진강변을 역불산을 배회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며 아내와 함께 주먹을 불끈 쥐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 곧 나의 집을 장만하는데 성공하였다. 고향인심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여기저기서 값싼 사채 대출도 해준다. 지금도 고맙기 짝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재능기부를 10여년을 한다.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남녀비율 반반으로 20여명으로 정하여 한문교육을 했다. 물론 한자 교습서도 내가 직접 발행하고, 아이들하고 보내는 그 시간은 보람과 희망 자체였다. 휴일이면 아이들하고 역불산에서 탐진강에서 쓰레기도 줍고 이웃동네 경로잔치에 직접 찾아가 설거지도 하며 자연을 벗 삼은 교육, 인생교육도 쉽 없이 하며 나의 젊

은 날을 보냈다. 2016년 7월 9일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 신흥(신흥의 옛 마을명은 연산) 사람들 다 모여서 우리가 어렸을 적 탐진강변에서 고기 잡아서 끓여 먹었던 매운탕에 막걸리 한 잔 하자며 전국에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초봄부터 연락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드디어 7월 9일이 다가오는데 염치없는 태풍 네파텍은 우리 한반도를 정조준하고 있지 아니한가. 난감할 수밖에. 그러나 우리는 독려했다. 장흥의 신흥 사람들의 흥을 네파텍도 합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 하며 곳곳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드디어 그 날 7월 9일 하늘은 활짝 개였고 전국에 있는 우리 신흥사람들은 인산인해였다. 6~70년대 보다 잘 살아보자고 떠났던 때가 벌써 4~50여년 그때를 추억하며 모인 고향인들 마치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나 볼듯한 장면들이 여기저기에서 감동의 물결이었다. 세대수 20여 가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1박2일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지도 처음인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고향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나는 살아간다. 가끔은 아주머니들이 결혼하는데 힘들지 않았느냐고, 더욱이 33살의 노총각이, 나는 주저없이 얘기한다. 지금의 내 처를 만나고자 33년을 참았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때로는 존경심이 들 정도로 고마운 아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고향 장흥을 찾고부터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었으니 내 고향 장흥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수많은

신흥사람들이 심지어 90이 넘는 어르신들이 고향을 찾으며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죽으면 고향으로 올 수가 있을까? 4~50년만에 “고향에 와보니 너무 좋아.” 하시며 죽음을 얘기한다. 우리 장흥은 공원묘지가 있다.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훗날 다가올 일에 대하여 공원묘지를 추천하니 아들 딸까지도 찬성을 한다. 소원대로 공원묘지에 편히 모셔져 계신다.

“장흥(長興)” 길게 흥하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남겨둔 땅 장흥, 우리 고향이 이제 비로소 그 빛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스스로 자위해 본다, 그리고 장흥인으로 신흥인으로 태어남이 얼마나 자랑스런지도 모른다. 우리 마을 뒤에는 연산봉이 우리를 안아주고 앞에는 장흥의 젖줄 탐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앞에는 억불산·사자산·제암산이 잘 어우러져 우리의 꿈을 희망을 키워주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나는 지금 이장(里長) 일을 보고 있다. 큰 동네이기에 일도 많다. 그러나 보람도 많이 느낀다. 50년이 훨씬 넘은 개구쟁이 소년일 때 장흥읍사무소는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70이 다 된 오늘날의 장흥읍사무소는 우리들의 일터로 변했다.

위와 같이 고향 장흥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주었다. 성공을 주었다. 작은 왕궁(가정)을 주었다. 나는 도회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제는 지친 도시생활을 접하고 고향에 와서 마지막 단풍을 물들이자고 외친다.

만약 내가 고향으로 오지 않았다면……. 생각하면 아찔하다. 산에서 들에서 강가에서 유년 시절의 꿈들이 이제야 비로소 활짝 펴

진 것 같다.

도회지에 사는 고향인 여러분 고향도 늙어갑니다. 더 늙기 전에 고향을 찾고 고향에서 마무리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 가져봅시다.

어머님 품속 같은 장흥
맑은 물 푸른 숲의 장흥
고향 장흥이 있어 즐겁습니다.
내 고향 장흥이여 영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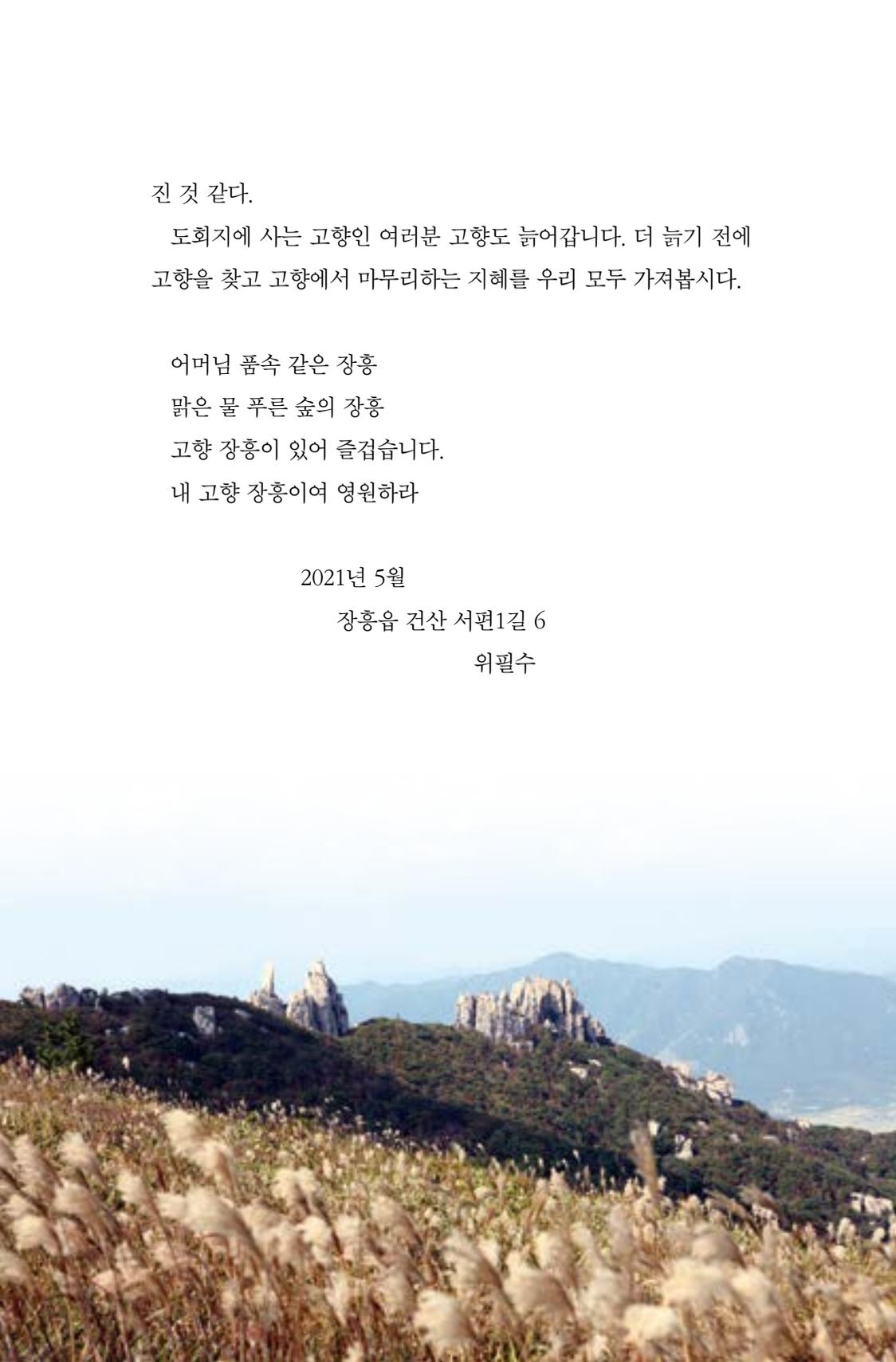
2021년 5월

장흥읍 건산 서편1길 6
위필수

장려상

장흥, 돌아서 행복

김건일



저는 직장 관계로 장흥에 와서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2017년에 장흥에 와서 정착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날 장흥에 처음 들어와 시작할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자율재의 터널 공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재너머길로 가는 그 길이 참으로 멀게만 느껴질 정도로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커브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번 씩 자율재를 지나가기 위해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가는 순간, 웬지 저도 모르게 순탄하게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렇게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학동의 메밀밭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시작한 장흥살이는 처음엔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보단 편리함과 편안함이 더 크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고, 영화관도 있어 저렴한 가격에 영화도 곧잘 보곤 하였습니다. 근처에 도서관도 군청과 도교육청 산하에 2군데가 있어서 따로 책을 사다 볼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2017년 이후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 주말이면 가득 차 있는 천변의 주차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츰 카페며 여가 시설들도 늘어나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기에 괜찮았습니다. 꾸준히 탐진강 주변으로 편의시설들이 개선되고 물축제 규모도 커지며 발전하는 장흥의 모습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선학동의 메밀밭에서

그러다 지금의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 친구와 함께 하며 장흥 곳곳이 추억이 서린 소중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정남진전망대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화사하게 내렸을 때에는 선학동의 메밀밭에서 서로 즐겁게 웃으며 하얗고 푸른 들판을 거닐었고, 조금 더 햇살이 우리 곁에 찾아왔을 때는 수목원에 찾아가 색색이 튜립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날에는 저녁에 탐진강을 걸으며 더위를 함께 날려버리곤 하였습니다. 고즈넉한 보림사의 너른 길을 밟으며, 3층 석탑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국보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앞에서 예불을 드리기도 하며 어느 가을 한나절을 보내기도 하였

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쯤엔 해질녘에 붉은 기가 감도는 소등
섬을 바라보며 올해가 무사히 지나간 것에 서로 감사히 생각하였
습니다.

어느 가을날 탐진강의 꽃들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1년 여간 전남의 다른 도시 지역에서 일하게 되
면서 결혼을 생각한 상대방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장흥 이
외의 도시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상
대방은 저의 생각과 의사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저를 배려
하였습니다. 저의 선택은 장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보자였



어느 가을날 탐진강의 꽃들과 함께

습니다. 도시에서 주는 편리함은 결혼하며 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영화도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고, 다
양한 물건을 손쉽게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으며, 병원도 가
깝게 있습니다. 아마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용하게 될 이런 시
설들이 주는 편리함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과연 도시에서의 삶에 만족할 것인가?’라
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장흥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주는 편리함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도
시가 주는 괴로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서 가
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이 주차문제였습니다. 6시에 퇴근하거나
일이 늦어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었
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 10분여를 떠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
어느 날은 30분 가까이 주차할 곳을 찾아 차를 빙빙 돈 적도 있었
습니다.

운 좋게 공간을 찾아도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주차를 하다보면
퇴근한 지 훌쩍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차 문제로 제
차를 일부러 펑크 낸 적도 있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크게 한 적
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장흥군은 오래된 주택을 정비하거나 철거하여 빈 공
터로 두거나 주차장으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읍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변 공터에 주차할 곳도 많아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장흥에 비해 도

시 지역의 삶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며, 여유로움을 느낄 순간도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항도 참 많고, 정신없이 몰두해 있다 보면 어느덧 늦은 저녁 시간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주말은 스쳐지나가고 다시 일을 하다보면 여유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바쁘게 출근하여 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나날들이 지속되면서 점점 여유로움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날카롭게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입고, 힘들어했을 사람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은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조금 더 도시에서 남아있을 수 있었음에



꽃길만 걸자

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장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나날들은 장흥에 계속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 다시 돌아온 장흥에서의 일상은 평화롭고 아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편안함이 감돌면서 다시금 가장 소중한 이를 보다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함께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일구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탐색하던 중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흥군청에서 운영하는 결혼장려금 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같이 장흥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지원이나 출산지원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체계적이고 좋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작년에는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남성요리교실에 참여하며 신혼을 대비하여 요리 공부도 하였습니다. 여자 친구가 신청을 적극 권유하며 참여하게 되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요리의 기본기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자 친구를 위해 약소하지만 요리교실에서 익힌 돼지불고기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좌) 장흥다문화센터의 요리교실에서
우) 장흥다문화센터에서 알려준 돼지불고기와 함께

장흥에서의 소중한 기억과 앞으로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할 곳은 바로 이곳 장흥이 될 것입니다. 탐진강을 따라 걷는 이 길을 서로 좋아하기에 퇴근 후에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연애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 후 함께 산책하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맛있는 치킨을 곁들여 짧은 피크닉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돛자리를 펴놓고 탐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사랑하는 이와 오늘의 일상을 공유할 것입니다. 장흥에서 소중한 이와 함께 하며 앞으로 얻게 될 큰 행복 앞에서 그 어떤 편리함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어려

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채워주는 장흥의 따뜻함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편안한 존재가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항상 같이 길을 걷는 든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사랑을 맹세하며



장려상

장흥? 장흥~!

이소영



“장흥? 장흥이 어딘데?”

“전라남도? 장흥?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구!”

아버지와의 통화에 첫마디였다. 해외로 이민을 가서 10년을 사업하시던 부모님께서 나의 결혼과 동시에 모든걸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 중 정착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곳이 장흥이었다.

장흥이라..

내겐 너무도 낯선 곳이었다.

일가친척 통틀어 호남쪽 분들은 없었고, 아무래도 가족 모두가 영남 출신들이라 여행을 다녀도 대부분 영남지역으로 다녔던 터라 내가 아는 전라도쪽의 지역으론 광주·여수·전주·목포가 다였고, 또 역시 가본 곳이라곤 아주 어릴 때 전주한옥마을? 정도가 다였음으로 장흥이라는 도시는 나에게 전혀 감이 오지 않았던 곳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와도 장작 5시간, 부산에서 내려와도 5시간.



너무 밑에 있어도 너무 밑에 위치한 장흥이라는 곳을 왜 부모님이 선택하셨을까?

첫 부모님 댁 방문에 그 의문이 풀렸다.

부모님 댁은 너무 아름다웠다. 목련화가 가득한 나무가 입구에



있었고, 아주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옛날 기와집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 집에 훌쩍 반했던 나는 부모님을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고, 우리가 그 집에 산다.

공기청정기 없이는 살지 못했던 내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건 몇 년만의 일이었다.

장흥의 공기는 너무 좋았다. 산과 물 나무가 가득했고, 새소리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천국과 같았다.

그때 결심했던 것 같다. 아이가 생기면 이곳에 와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우린 부모님을 뒤따라 장흥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고, 공기 좋은 장흥에서 벌써 아이를 넷을 낳고 살고 있다.

사실 처음부터 시골생활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일찍부터 일어나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의 시간에 맞추기 바쁘고, 사투리를 들으면 해석하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기 바빴다.

처음 해보는 농사는 너무 어려웠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은 농사를 많이 지으신 어르신들의 비하면 쓸모없는 지식이었다. 또, 여러 가지를 간섭당해야 하는 시골의 정서에 맞춰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도시에서 온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에게 궁금한 존재이기도 했다.

시골집에서 나오는 벌레들과의 전쟁도 무시하지 못했다. 도시에서만 자란 신랑은 처음 본 벌레들에 기겁을 면치 못했다. 그렇게 놀라는 모습들을 보며 얼마나 웃었던지 모른다. 오죽하면 우리 끼리의 암호 ‘벽을 주시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벌레라고 하면 기겁하지만, 많이 좋아졌다. 아이들 역시 시골에 적응하는데 조금의 시간은 걸렸다. 앞서 언급했던 벌레들이 제일 큰 난제였다. 매일밤 자기전 이불을 들추며 벌레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했고, 잠시만 문을 열어봐도 벽을 주시하기 바빴다.

큰아이들은 처음 와서 몇 달 동안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밤만 되면 까치밭로 걸어야 했었고, 놀이터 조금 있던 모래 마저도 담배꽂초들과 섞여있는 것을 본 후 손도 못대었던 아이들은 여기와서 마음껏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온 동네가 자기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보며 서서히 시골의 생활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잔디밭에 넓죽 앉아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진달래꽃씨를 가져와 후후 불며 까르륵 웃었고, 예쁜 꽃으로 반지를 만들며 자랑하기 바빴다.

특히 아버지의 농장은 아이의 유치원 친구들에게 인기만점이었다. 심어놓은 작물들을 구경하고, 풀려있는 닭들도 구경하며 낱아놓은 달걀을 꺼내서 작은 손으로 옮겨담고, 작은 연못에 헤엄치는



174 _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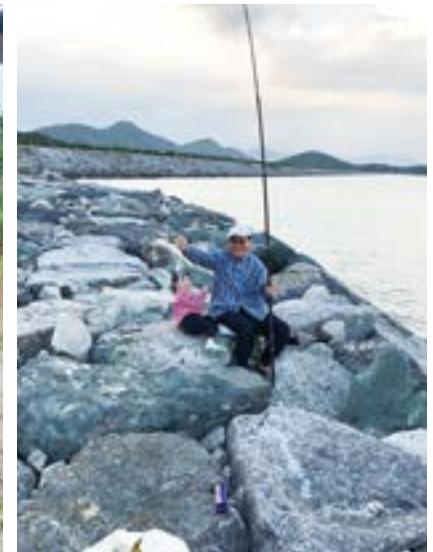
금붕어들 이름을 지어주며 불러주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하랑이네(첫 아이 이름)집 너무 좋다고 각자 부모님들께 이야기한 것을 돌아 나에게 다시금 들릴 때면, 장흥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과 장흥 중에서도 시골 안쪽 시골향이 가득한 곳에서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가족은 서서히 장흥에 적응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어르신들의 관심이 사랑으로 느껴지며 먼저 다가가 안부를 건네게 되었고, 어르신들 말대로 농사를 지으니 신기하게 땅이 숨쉬듯 농사가 잘되었다.

땅과 바람과 비와 한몸이 되어 농사짓는 농부들의 지혜와 지식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소영 _ 175



벌레들이 나오기 전 어르신들의 지혜를 얻어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리고 비가 오기 전 습해지지 않게 모든 준비를 해놓는 시골사람이 되었다.

군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우드랜드 역시도 장흥에 사는 자부심중 하나이다. 친구들이 예전 나의 반응처럼 “장흥? 거기가 어딘데?” 할때쯤이면, 난 한마디만 한다.

“네이버 초록창에 ‘장흥우드랜드’ 쳐 봐.”

그러면 모두가 “우와 너무 좋겠다~”라는 대답을 한다.

지금 완전히 정착하여 산 지 일년이 되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자라나고 있는 작물들을 볼 때면 귀농의 자부심을 느낀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마당과 공기좋은 주변환경, 여러 가지 자연식물들, 군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우드랜드..

그래서인지 장흥은 기본 자녀들이 3~4명 5명! 7명이다!

그 덕분에(?) 넷을 낳은 나는 어디서 명함도 제대로 못내밀지만, 그 말은 즉 출산정책도 좋은 편이다. 장흥에 온 걸 우리 가족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첫 나의 물음 장흥??에서 이제 장흥!! 으로 바뀐,

친정부모님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3대가 살아가는 장흥, 좋지아니한가?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장려상

내 고장 장흥(長興)이
최고당께요~

위삼석

꿈 많고 끼 많던 학창시절을 보내고 직장생활을 바로 한 탓에 지금까지 장홍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나, 학업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온 기간을 빼고는 거의 내 삶의 전부를 내 고장 장홍에서 보냈으니 장홍의 산 증인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꿈 많고 어디로 될 지 모르던 학창시절과 직장에 정착을 하고서는 멋진 배우자와 예쁜 가정을 꿈꾸며 보냈던 나의 청년 시절을 떠올리며 배시시 입가에 열은 미소를 띄어 본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27살의 어여쁜 아가씨와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광주 지사로 잠깐 파견 나온 풋풋하고 멋진 청년은 1994년 11월 둘째주 토요일에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지금까지 꿋꿋히 장홍을 지켜온 사례가 된 것이다.

27년의 인생을 장홍에서만 지냈던 터라 서울 표준말을 하며 매너가 좋은 한 남성을 만나 대화를 주도해 가며... 아니 사실은 주도라기 보다는 오리지널 전라도 사투리에 장홍 사투리까지... 서울 총각의 눈에는 내 모습이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재밌고 연구대상이었나 싶다. 그때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던 시절이라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광주행 버스를 타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배고픔도 잊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예쁜 치마 투피스 정장을 입고 빨강색 힐에 예쁜 가방도 매고 조금이라도 멋진 호감을 사려고 잔뜩 꾸미고 나갔다. 약 26년 전인데도 제법 대화가 잘 통하고 첫

만남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집(장홍)까지 바래도 주는 센스까지.. 첫인상은 완전히 좋았던 것 같다.

결혼을 한 후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소개팅을 했던 날 지금의 남편은 서울에 있는 본가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장홍까지 나를 바래다 주고 또 다시 그 길로 서울까지 올라갔으니 이 얼마나 감동할 일인지... 소개팅 후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아마 남편도 나에게 대한 첫인상이 좋았던 것 같다. 그날 새벽 남편은 서울 입구에 있는 마지막 휴게소에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꿀잠을 자버렸다고 한다. 그사이 해는 중천.. 둥근해가 뜨고 시부모님은 걱정을 하시느라 한숨을 못 주무셨다는 에피소드까지 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주중과 주말에 광주에서 장홍을 오가며 정말 지극 정성으로 나에게 공을 드렸던 것 같고 만난 지 3개월만에 우



리는 결혼에 “골인”... 나도 드디어 꿈꾸며 상상해 왔던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겠다는 환상도 잠깐, 금방 배가 불러 뒹뒹뒹~ 허니문 베이비를 갖고 바로 나의 사랑 큰 딸을 품에 안게 되었다. 초보엄마의 설렘으로 마냥 신기하기만 했던 사랑스럽고 예쁜 딸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피곤과 근심 걱정은 모두 날아가고 마냥 좋기만 했던 것 같다.

직장생활을 계속 했던 터라 산부인과에 진료를 다니며 예정일을 잡는데 제일 힘이 들었다. 산모의 건강 상태나 골반 상태 등으로 봐서는 순산을 장담하지만 아이의 머리가 크다는 의사의 말에 의기소침해져서 살짝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도분만을 시도하며 애를 썼지만 17시간의 시간은 정말 더디게도 흘러 갔고 날을 새어가며 진통을 했는데 결국 “아이가 엄마 뱃속

에서 너무 힘들다”는 담당의사의 말 한마디에 바로 제왕절개 수술에 동의했고 드디어 3.2kg의 건강하고 예쁜 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머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의 뱃 속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비록 자연분만은 실패했지만 내가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 사랑스러운 딸 아이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고 장흥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

그 후 우리 부부에게 2년 6개월 후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둘째 딸 아이가 또 선물로 찾아왔다. 얼굴은 뽀얀게 보름달 같고 입은 오밀조밀, 손가락 발가락은 꼼지락 꼼지락... 초등학교 시절엔 성



장이 빨라 키도 크고 운동도 제일 잘 했던 것 같다. 중학교 시절에는 또래상담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며 위로를 할 줄 아는 착하고 예쁜 딸이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태어난 둘째는 여러 방면에서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으며 사랑스럽게 자라서 지금은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성품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를 선물로 받은 후 2년 2개월 후 세 번째로 막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위로 누나 둘을 두었지만 씩씩하고 남자답게 잘 자라서 현재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리더십이 강해서 지금까지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순종해서 뭐 하나 버릴게 없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다시 한번 이 글을 쓰며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들과, 아들을 주심과 귀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사람들이 좋은 장흥에서 세 자녀를 초·중·고등학교 까지 과정을 졸업시키고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보면 큰 행운이 아닌가 싶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큰 꿈을 꾸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소망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할 뿐이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운명처럼 만났던 지금의 남편의 이야기를 써보려 한다. 운명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좋았던 일, 슬

펴던 일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기뻐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너리를 스친다.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효를 실천하며 자녀의 도리를 몸소 행하는 지행합일의 사람, 아내에게는 배려심이 많고 이해도 잘하여 위로할 줄 아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실천하며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다.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써 친구 같고 때론 엄한 스승 같아서 옳은 길로 인도하며 쓴소리로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는 아빠, 여러 가지로 본이 되는 참 모범이 되는 아빠이다.

그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장흥 구석구석을 다니며 SNS에 홍보도 하는 홍보맨이며 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억불산·천관산·사자산·제암산·가지산 등 장흥에 있는 산은 모두 섭렵할 정도로 등산을 좋아한다. 또 걷기를 좋아해서 나도 덩달아 함께 탐진강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고 위로하며 내 일을 계획도 하며 미래를 설계해 보기도 한다. 요즘은 사이클에 관심을 갖고 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등 라이딩을 즐기며 주말을 보내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배려심이 깊고 사려심이 깊어서 타인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할 줄 아는 매너남이다. 지금 남편의 조그마한 바램은 아내와 함께 사이클을 타고 라이딩도 즐기고 사진도 같이 찍으러 다니고 싶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바램은 미안하게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마음 먹어 본다.

남편은 30여 년 전 서울에서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곳 정남진 장흥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중이다. 총각때 여행을 좋아

해서 전국 일주를 하던 중 장흥을 경유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흥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억불산 “며느리바위”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한다. 남편은 며느리 바위를 바라보며 “내가 또 언제 며느리 바위를 볼까?” 하며 눈여겨 봤다고 한다. 아뵘사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날마다 보게 될 줄이야... 가끔 지인들에게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운명 같은 이야기를 신나게 할 때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인연은 인연인 듯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또한 장흥을 사랑해서 장흥군 홍보대사로 이곳 저곳을 누비며 사진으로 영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전남 SNS 서포터즈로도 활약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내 고향 장흥에서는 기를 못 펴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환경과 이렇게 사람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장흥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일인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반백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며 또 다른 내일을 계획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듯 싶어서 이런 기회를 준 장흥군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앞으로 장흥을 사랑하고 지키며 홍보하고 잘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내 고향 장흥(長興)은...

위 삼 석

내 고향 장흥(長興)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곳

내 고향 장흥(長興)은
문림과 의향의 얼을 이어 가는 곳

내 고향 장흥(長興)은
사랑과 격려가 흘러 넘치는 곳

내 고향 장흥(長興)은
먹을 거리와 볼거리가 많은 곳

내 고향 장흥(長興)은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곳

내 고향 장흥(長興)은
영원 무궁토록 길이 길이 흥할 곳



장려상

시골의 밥은 짜다

이진영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 다니는 5개월 차 신규 간호사입니다. 매일같이 장흥을 그리워하고 있던 참에, 저의 가족 문화를 전해드리며 그리움을 상쇄시켜보고자 합니다.

저는 장흥 회진면에서 태어났고, 자라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왔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 한 대학병원 간호사로 합격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라는 특이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1년 동안 입사가 미뤄졌습니다. 덕분에 중학생 시절 이후 처음으로 부모님과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뭘 하시냐고 물으시면, 그동안은 “농사도 짓고, 소도 키워요.”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직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려 약 200마지기 농사를 짓는 “대농가”이시고 소 74마리를 키우십니다.

이러한 대농가의 막내딸인 저는, 연약하고 귀한 딸이기 보다 좋은 일꾼으로서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작년 1년간 부모님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늘 전화 수화기 너머로 “바쁘시죠? 고생하세요.”라는 형식적인 말만 건네거나 아예 ‘바쁘시겠지?’ 하고 전화를 안했었지요. 하지만, 실제로 시골에 살아보니 바쁘고 힘든 날도 있지만 희로애락이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기상해야 하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매일 달라지는 노을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밭에서 나오는 작물과 싱싱한 해산물, 봄에는 낙지, 가을에는 전어로 이루어진 밥상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여유도 많았던 장흥 살이가 기억

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부터 작년의 일기를 빌려 장흥에서의 봄과 여름, 가을의 농사와 계절의 묘미를 전달합니다. 어릴 적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가족의 품과 장흥의 향기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성인이 되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봄, 농사의 시작

1. 큰 일, 못자리 하는 날

,못자리는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한 날이라 “큰 일”이라 한다.



파종기로 모판을 만드는 모습



못자리 2000장

전 날부터 파종기, 볍씨, 상토, 물까지 분주하게 준비했다. 품앗이로 많은 사람들이 못자리를 위해 모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 받고 바로 파종기 전원이 켜졌다. 모판을 한 장씩 넣고, 1차 상토, 볍씨, 2차 상토, 물이 순서대로 쌓이면 모판이 완성되어 나온다. 나는 빈 모판을 공급하는 역할이었는데, 기계의 속도에 따라가려니 마음은 바쁘고, 숨은 거칠어져 '나만 쉴 틈이 없네!' 생각했다. 하지만, 맛있는 새참 먹을 때가 되니 모두 자신의 역할이 가장 힘들었다고 주장하였다. 20kg가 넘는 볍씨 가마니를 드는 사람, 완성된 모판을 열 장씩 가져다 나르는 사람 각자의 말을 들어보니 왜 못자리를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지 이해가 갔다. 기계가 쉼 없이 돌아가던 2시간 동안 그저 모판 한 장 한 장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품앗이'라는 것이 그저 일손을 돕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정과 마음을 전하는 자리인 것 같다. 한 명 한 명의 몫이 중요하기에, 미리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 모두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고, 건강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혼밥(혼자 먹는 밥)'이 늘어난 요즘 시대에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품앗이 문화이다. 덕분에 무사히 2,000장의 모판이 완성되었다. 이제 부직포로 덮어 따뜻한 온도 속에서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2. 모판내는 날, 쓱쓱 커라!

모가 싹이 틈기 시작해 모판에서 1.5cm정도 되면 모판을 내기 시작한다. 흔히 평평한 흙 위에서 모를 키우는데, 로타리 칠 때 모를 건졌다가 다시 물에 담구는 과정을 반복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아빠는 쉽게 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사방이 독으로 막힌 시멘트 공간을 마련하였다. 실로 가상의 줄을 그어놓고 가지런히 모판을 내려놓는다. 추레라에서 무거운 모판을 시멘트 바



사방이 독으로 막아져 있어 쉽게 물을 넣고 빼며 모를 키울 수 있는 곳이다. 여러이서 모판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



모가 자라고 있는 모습

닥에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다음 날 절로 곡소리가 난다. 이후 모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부직포를 덮어두고, 매일 물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며 키워 낸다. 모판 내는 일을 마치자 아버지는 “한 해 농사의 절반은 했다.”라고 하였다. 언제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시골에서도 농사의 시작인 봄이 가장 부지런해야 할 때임을 매일 느낀다. 말은 절반을 했다고 하지만, 모를 준비했으니 부지런히 모를 심을 땅을 준비해야 한다. 겨울 내 심었던 보리와 풀을 베고 다시 로타리와 써레질을 시작한다.

부모님과 24시간 함께 한 지 한 달 쯤, 이제야 부모님 삶을 알아간다. 부지런한 삶, 그리고 이를 즐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늘 건강할 것만 같던 아빠도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무릎이야.”하는 곡소리를 절로 내뿜는다. 하지만, 일할 때만 되면 눈빛이 변하면서 무거운 모판을 열 장씩 번쩍 들고, 힘든 일을 이 악물고 해내신다. 이제 본인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말을 건넸다. “새로운 트랙터 하나를 샀는데, 멋대로 일른 써버리고 버리는 게 좋아? 아니면 소중히 다루어서 오랫동안 쓰는 게 좋아?” 하고 물으니 “당연히 오래 쓰는 게 이득이지!” 하셨다. “그러니까, 몸 좀 소중히 다루세요!” 하고 외치니, 씩 웃으시는 아빠다.

3. 봄의 묘미

벚꽃 드라이브, 안양 수문 바지락과 오징어 먹뽕! “꽃 잎 떨어지기 전에 많이 봐야 해.”, “취직하기 전에 실컷 봐야 해.” 아빠의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비오는 날마저도 벚꽃을 보러 갔다. 매일 풍성함이 달라지는 벚꽃을 구경하는 것은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일이다. 드라이브를 마치고 아빠에게 얻어먹는 철관 짜장도 꿀맛이다. 우연히 엄마가 없을 때면 농사일은 잠시 제쳐두고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나온 김에 짜장면 집까지 가버린 것이 여러 번이라 엄마가 은근히 서운해 하는 일도 있었다.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친구가 갑자기 밥을 사준다 했다고 말하자.” 아빠와 나는 변명을 구상하다 부득이하게 “먼저 식사하십시오.”



오징어 먹뽕. 먹물을 터트려 구수한 맛이 난다. 먹물 밥까지 비벼먹으면 최고의 봄의 묘미.



오동통통한 안양 수문 바지락으로 만든 파스타. 쫄깃한 맛에 자꾸 손이 간다.



꽃자리를 마치고 떠난 벚꽃 드라이브, 장화신은 모습마저 멋지다.

시오.”라는 어색한 문자를 엄마에게 보내기도 했다. 물론, 얼굴을 보자마자 웃음보가 터지는 바람에 이실직고하기도 하였지만. 아빠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능글맞게 넘어갔었다. 봄 향기가 가득한 드라이브를 질리도록 했다고 생각했는데, 올 해가 되니 또 벚꽃 드라이브와 엄마 몰래 먹었던 짜장면 맛이 생각난다.



모내기하는 모습,
아빠는 줄을 맞춰가며 반듯이 모를 심고 나는 뒤에서 모를 공급한다.

여름, 더위와의 싸움

1. 첫 모내기하는 날

모내기를 시작했다. 아마 10일간은 꼼짝없이 매일 모를 심을 것 같다. 오늘은 직접 이앙기에 올라탔다. 아빠는 이앙기를 운전하고, 나는 모가 잘 심어지고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이앙기의 모가 떨어질 때마다 모를 넣는다. 혼자 이앙기를 운전하며 모가 떨어지면 멈춰서 공급하는 것보다 누군가 뒤에서 모를 끊임없이 넣어주는 것이 시간이 빠르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에 서툴기만 했다. 이앙기는 많이 흔들리면서 잡을 곳도 없다. 게다가 모가 잔뜩 실어져 있어 밭 디딜 틈이 없다. 오롯이 밭붙인 곳에 힘을 주며 중심을 잡아야 했다. 동시에 팔이 닿지 않는 곳까지 무거운 모를 들어 넣어야 했다. 나름 머리를 쓴 것이, 무릎을 꿇어 무게 중심을 잡았다. 하지만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계속 꿇고, 일어서서 넣는 것보다 정확성이 떨어졌다. 멀리 있는 칸은 모의 한쪽 모서리가 구부러진 채 들어가서, 이앙기가 한 줄을 빼고 심는다. “모가 안 나와요.” 하고 멈춰서 확인해보면 내가 잘못 넣은 탓이었다. 그렇게 여러 번을 실수를 한 것 같다.

무게 중심 잡기도 어렵지만, 하루가 참 덥다. 이미 시꺼메진 얼굴은 걱정할 틈도 없이 정수리가 따갑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써도 땀별에 달귀지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열사병으로 죽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오늘 하루 동안 7필을 심었다. 얼음물로도 피할 수 없는 더위 때문에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집에 와서 보니 무릎에 멍투성이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프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멍이 생겼는지 몰랐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 무릎인데, 내일은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고 가볼까?’ 생각했다. 모는 제대로 안 심고 무릎에 멍을 심고 왔다.

2. 계속 되는 모내기, 방귀판 사건

아빠는 무쇠 밭이라 어디든 맨발로 다니신다. 게다가 갑갑한 장



모를 심는 옆모습.
사진처럼 아빠 얼굴 쪽으로 엉덩이를 내밀면서 일을 한 모양이다.

화는 싫어하시니 오늘도 맨발로 이양기를 운전했다. 바람이 잘 통하지만, 이양기에 모가 걸리면 난감하다. 결국 맨발로 논에 들어가 종아리까지 뺨을 문히고도 아랑곳 않고 계속 모를 심었다. 새참 먹을 시간이 되어 갯길에 둘러앉았다. 아빠 발은 뺨이 굳어가면서 마치 코끼리 발처럼 보였다. 코끼리 발이 너무 웃기면서도 굳은 살이 박혀 더욱 감각이 무뎠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술 한 잔 걸친 아빠는 조심스레 나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셨다. “모 심을 때 내 옆에서 방귀판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네 엄마가 아니라 그동안 말을 못 했다만 자꾸 내 얼굴에 방귀판을 들이밀어... 물론, 내 딸이라 냄새는 안 나지만 좀 그렇다.”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중심을 잡으려다 보니 엉덩이를 아빠 얼굴 쪽으로 내밀었던 것 같다. 나는 이양기 뒤를 바라보며 모를 넣고, 아빠는 앞만 바라보고 가니 말이다. 여름 내내 모내기가 다 끝나갈 때까지 딸이라 차마 말은 못 하고, 가만히 참고 있었을 아빠를 생각하니 웃기기도 했다. 엄마는 새참을 다 먹을 때까지 웃음꽃이 피었다.

모내기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집에 못하고 식사도 밖에서 해결한다. 때문에 저녁 썸이면, 스스로 독한 땀 냄새가 난다고 생각이



장흥에서는 된장 물 회를 많이 먹는다. 모내기를 마치고 시원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더위가 가신다.

든다. 어느 날, 아빠에게 “내 땀 냄새가 심하지는 않아?”라고 물었다. 아빠는 “땀은 국화꽃 향이 폴폴 나서 같이 있으면 안 힘들어.”라고 대답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또 들으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여름의 묘미. 용뎀병 계곡과 닭백숙

장흥에 살면서 건강해진 이유 중 하나는 엄마가 해주는 닭백숙을 자주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가 거세게 오는 어느



전라도에서만 먹는 다는 닭 육회

날, 아빠 친구 분들을 불러 모아 식사를 대접했다. 첫 번째 요리는 닭육회. 갓 잡은 닭의 가슴살을 썰어 간을 맞추고, 얇게 썬 마늘과 고추를 더해 상에 낸다. 나도 닭육회는 처음 먹어본 낯선 음식이다. 씹히는 맛이 느껴져 고소하고 감칠맛이 난다.



닭 백숙과 닭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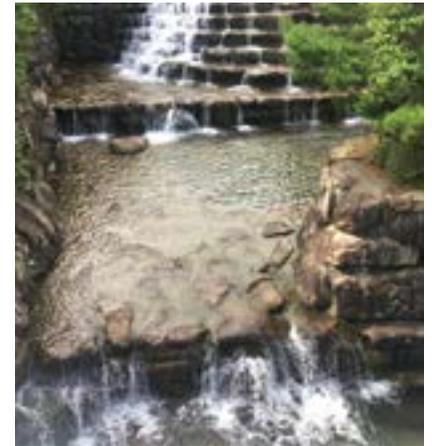
두 번째 요리는 닭백숙. 각종 한약재를 넣어 솥에 삶아냈다. 끓일수록 노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왔다. 날개를 통째로 들고 먹었는데, 입에서 그대로 녹아버리는 닭 껍질을 비롯해,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살코기까지! 먹어본 백숙 중 최고였다. 무엇보다 진국인 국물에 닭죽까지 만들

어 먹으면 끝내주는 보양식이 완성된다. 모내기를 하며 힘들었던 날은 잊어버리고 비 내리는 여름날의 백숙만 기억이 생생하니, 역시 먹는 것이 시골에서의 큰 낙이다.

가을, 수확의 기쁨

1. 추수

한 해 마무리를 짓는 단계이다. 하루 종일 ‘방동생’ 잡초를 뽑느라 지쳤던 일, 무거운 비료를 들고 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던 일, 벼멸구가 눈에 띄어 로타리를 치고 모내기를 다시 한 일, 우렁이를 매일 한 바구니씩 주었던 일, 풀을 베고 나서 풀로 감는 작업을 비오기 전까지 밤을 새가며 일하던 아빠 옆에서 잠을 깨웠던 일까지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아빠는 올 한해가 가장 농사짓기 힘들었다고 말하셨다. 특히, 벼멸구라는 해충이 눈을 침범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이나마 수확량을 많이 얻기 위해 논이 다 마르지 않은 채 콤팩타인을 강행했고 수분이 많은 알갱



더운 여름의 놀이터, 용뎀병 계곡



회진 정남진 전망대의 모습



논이 마르지 않아 축축한 벼 줄기가 콤바인에 걸렸다. 이를 사람의 힘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눈에 넘어져버린 나.



콤바인으로 수확을 마치고 이동식 곡물탱크에 비우는 모습

이들이 곡물탱크에서 뭉쳐 나오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다. 아빠는 자그마한 콤바인 곡물탱크 문을 열고 들어가 파냈고, 나와 엄마는 이동식 곡물탱크에 들어가 곡물을 파내어 힘들게 건조기로 옮기던 날들이 기억난다.

아빠가 수확을 마치고 이동식 곡물탱크에 비워주면, 나는 운전하여 창고의 건조기 앞으로 가져다두고, 다른 이동식 곡물탱크를 가져온다. 엄마는 곡물탱크에서 건조기로 곡물을 이동시키고, 건조기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셋이서 무한대로 일을 진행한다. 특히 건조를 완료하고 톤 백에 건조된 곡물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805kg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 엄마는 이 일을 매우 잘 한다. 저울에 톤 백을 올려놓고 눈대중으로 보고 줄을 당기면, 곡물이 내려오는 문이 닫히면서 정확히 805kg가 된다. “이것이 연륜이구나!” 싶다.

처음으로 낫질도 배웠다. 콤바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논의 입구와 모서리 부분을 미리 베어놓는 것이다. 이 때 엄마는, “벼 한 줄기가 ‘다 돈이다.’ 생각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줍자”고 하셨다. 벼멸구에게 큰 해를 입은 탓에 재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1/3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농사는 유난히 힘들었는데도, 수확량까지 줄어 수확을 할 수록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언젠가 “시골은 밥이 짜다.”라고 말했던 아빠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부모님은 기운을 내서 다음 해의 영양제 일정이나 모를 심는 간격 등에 대해 토론하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 추수를 마치고, 톤



다양한 종류의 벼를 심는데, 그 중 녹미는 검은 빛을 내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백을 직접 신고 정부 매상에 다녀왔다. 매상 등급을 받기 전, 마치 대학 성적을 받는 것처럼 떨리기까지 했다. 제일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마음도 기억이 난다.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고 쌀 포대를 가득 신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엄마가 늘 말했던 “시골은 결과물이 눈에 보여서 좋아.”라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보기만 해도 배불렀다.

쌀값아, 내년에는 더 올라라! 값진 한 해 농사에 비해 시골 밥이 너무 짜다!

2. 가을의 묘미 : 천관산 억새 구경, 문저리 낚시, 자전거타기

시골일이 체력적으로 힘들기에 신경질적인 말투가 나올 때마다 엄마에게 긍정적인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하며 기분 좋은 말을 나누자고. 어렵다면 하루에 다섯 번만 아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라 제안했다. 그 결과는...긍정적인 말 다섯 가지를 순식간에 나열했다. 마치 숙제하듯이. “예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딸이 긍정적인 말 다섯 가지 하라고 했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긍정적인 말투로 서로 존중하면 어떨까?” 하는 목적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 저녁 밥상에서는 엄마의 진심이 담긴 긍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구운 생선이 식탁에 올랐는데, 엄마는 숟가락에 생선을 발라 내 입에 넣어주면서 “나도 딸한테 이런 거 해주고 싶었어.” 하셨다. 왠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게, 행복했다.

대학교 자취할 때, 항상 남들처럼 맛있는 반찬도 해다 주고, 자주 들러서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다. 아무 말 없이 받아먹는 나에게 한 번 더 생선살을 발라 입에 넣어주었다. 어쩌면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질 만큼 못해준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막상 발라준 생선살을 넣어주는 엄마가 항상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엄마를 떠 먹여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시골에 1년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 부모님 두 분에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왔을까?”하는 의문이 가득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어.”라고 말하셨다. 덧붙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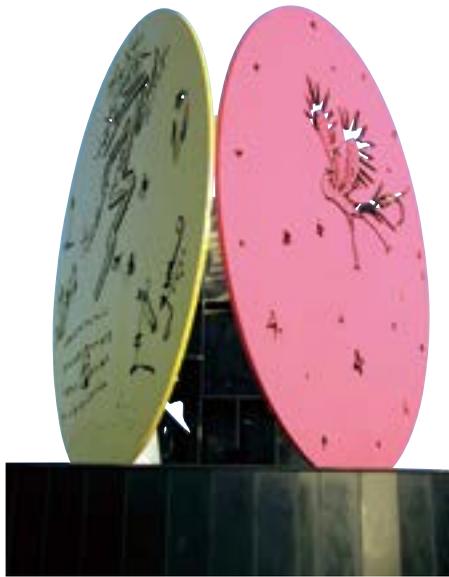
천관산 등산. 가는 길에는 억새를 구경하고 정상에 가면 회진과 대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속이 땡 뚫리는 전경이다.



아빠와 농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자전거 타는 일을 즐겨했다. 매일 달라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일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금은 오히려 나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나 의지를 많이 하는데, 딸이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 하시며 말입니다. 이 말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매일 듣는 말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왔는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서로에게 큰 힘을 얻는 것 같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적으로 힘들어진 농사의 부담을 덜고,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겨 외로움이 상쇄되었다. 나는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밥을 잘 챙겨먹고, 표현력이 부족했던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덕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특히,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던 아빠와 나누는 다정한 말들이 서로를 행복하게 한다. 오늘도, “너는 시골 일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랑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신다.





장려상

새내기 정착민의 씩씩한 장흥생활

송지연

높은 빌딩숲, 회색 미세먼지
시끄러운 소음, 수많은 인과
십 여년을 출퇴근하면서 보고 듣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장흥에 오기 전까지 서울에서만 거주한 도시인이었다. 장흥에서 직장을 잡게 되어 이사를 하였는데, ‘시골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친구들도 예전처럼 못 만날텐데 심심하진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섰다. 직장을 옮기지 않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꾸어 본 ‘혼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흥으로 이주를 결심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를 보낼 지역, 전라남도 장흥군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이주 준비를 시작하였다.

첫째, 장흥은 청정지역이다.

장흥은 단순히 깨끗한 농촌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장흥읍의 중심을 지나는 탐진강은 1급수 수질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장흥은 제조공장이 없어서 물이 맑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1급수 수질이 얼마나 깨끗한지 잘 모른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나를 보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장흥의 깨끗한 물 덕분인 것 같다.

실제로 살아보니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좋아 출퇴근길이 너무 상쾌하다. 서울은 미세먼지가 심해 시야가 탁한 경우가 많았는데

장흥에 와서 매일 콧물이 나오던 비염도 많이 좋아졌다. 밤에는 별도 많이 보인다. 탐진강변에 운동 겸 산책을 하러 자주 가는데 밤에 나갈 때에는 꼭 별을 보고 들어온다. 도시보다 별이 많이 보여서 별자리 찾아보는 재미가 매우 쏠쏠하다.

둘째, 장흥은 안전하고 따뜻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밤에 산책을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는데, 장흥에 막 이사왔을 때에는 혼자서 밤에 나가는 것이 걱정되었다. 도시처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밤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장흥은 큰 사건, 사고가 없는 치안이 좋은 지역이다.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도 목격하였다. 어느 날 이웃 사이인 것 같은 아주머니 두 분이 왼쪽 길과 오른쪽 길에서 각각 오시다가 우연히 만나셨다. 서로 안부 인사도 생략하고 대뜸 한 아주머니가 버섯봉지를 여시며 “몇 개 줄까?”라고 바로 다른 아주머니께 물어보셨다. 요즘 시대에 특히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만에 이웃을 챙기는 따뜻하고 정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산과 바다와 논과 밭이 있는 장흥은 풍부한 자연환경 덕분에 사람들도 인심이 좋고 이것이 안전한 장흥으로 이어지는 이유인 것 같다.

셋째, 대내외 인프라가 좋다.

장흥은 농촌지역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장흥읍은 다양한 시설이 있다. 영화보는 것을 좋아하여 장흥에 이사와서 주말마다 정

남진시네마에 갔다. 서울의 대형 영화관 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깨끗하고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다. 최신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바로 볼 수 있고, 맛있는 팝콘까지 팔다니! 처음 정남진시네마에 갔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 것 같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5월부터 재개관을 하여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생각이다. 도서관도 2곳이나 있다. 신작 소설도 있고, DVD도 대여가 가능하다. 영화관과 도서관은 여느 도시지역의 시설과 비교해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으며 지금도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다. 장흥은 지리적 위치도 좋다. 대부분의 다른 시군을 가는 데에 차로 1시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장흥에 거주하면서 순천·여수·목포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는 점도 장흥의 강점이다.

장흥에 살면서 아쉬운 점도 느낀다. 가장 크게 느꼈던 불편함은 인도(人道)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도(人道)가 없는 길이 많고, 있어도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거나 포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몇 곳을 말하자면 우선 중앙로부터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장흥교에서 하나로마트 가는 길이나 장흥읍사무소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길도 인도가 좁거나 보도블록이 깨져있다. 향후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면 서울에 사는 어린 조카들이 놀러왔을 때 관광지가 아닌 장흥의 거리 곳곳을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소개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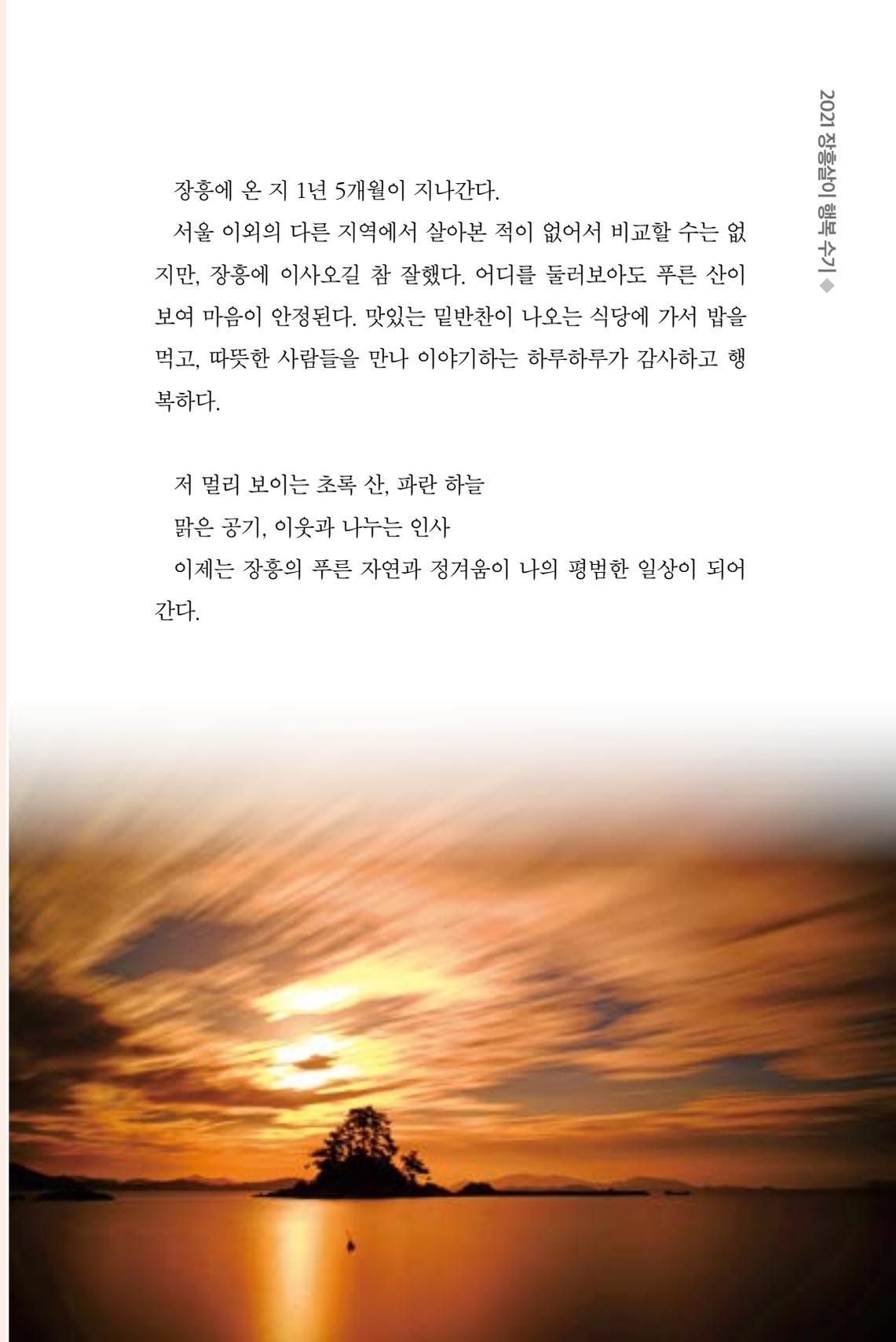
장흥에 온 지 1년 5개월이 지나간다.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장흥에 이사오길 참 잘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푸른 산이 보여 마음이 안정된다. 맛있는 밑반찬이 나오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다.

저 멀리 보이는 초록 산,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웃과 나누는 인사

이제는 장흥의 푸른 자연과 정겨움이 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간다.





장려상

장흥의사계절

박미순

대한민국에서 흥이 시작되는 곳, 길게 흥하라 해서 이름지어진 산 좋고 물 좋은 청정지역 장흥의 사계절을 소개합니다.

장흥은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사계절 어느 때에 찾아가도 눈과 입을 호강시켜준다.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다 서울에서 똑바로 남쪽으로 내달리면 닿는 곳이 정남진 장흥이다.

강원도 정동진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가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남쪽으로 곧바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한우삼합. 우드랜드 하면 ‘아 그곳!’ 하면서 TV에 나왔던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텐데 정남진은 낯설은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산, 그리고 강을 한꺼번에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바로 정남진 장흥이다.

토요시장이나 우드랜드는 정남진 장흥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빼어난 풍광으로 발길을 잡는 수많은 유혹을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다.

우선 목포쪽에서 오게 되면 매생이, 바다낙시와 유채꽃, 메밀밭이 아름다운 대덕·회진을 지나 호남 5대 명산 천관산에 당도한다. 수많은 기암괴석이 마치 천자가 쓰는 면류관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천관산은 봄에는 동백꽃, 늦가을의 드넓은 억새평원도 장관이지만 태고송 울창한 장천재도 빼놓을 수 없는 경치다.

산을 내려와 천관문학관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정남진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득량만을 바라보면 목은 체증이 싹 가신다.

나주까지 KTX를 타고 와서 장흥읍으로 들어오며 즐기는 방법도 있다.

동양3대 보림 중 하나인 천년고찰 ‘보림사’는 통일신라시대 국보급 좌상이 있으며, 사찰 주위에 자생 녹차가 가득하다. 유치면 상류 계곡에서부터 시작된 장흥댐의 물줄기는 탐진강을 만나 장흥군 일대의 식수원 공급을 담당할 만큼 1급 청정수를 자랑한다. 심정공원에서 캠핑을 즐겨도 좋고 유치자연휴양림에서 계곡과 숲을 만끽해도 좋다.

여수·순천쪽에서 올 때는 보성과 인접한 안양 수문해수욕장 쪽으로 길을 잡는게 좋다. 방송에서 많이 소개된 바지락 초무침이 일품이고, 키조개가 많이 나오는 곳이자 장흥의 자랑이며 한국문학의 거목이신 한승원 작가의 문학산책길을 걸으며 한편의 시를 지어보는 여유도 가져보자.

바다를 끼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해안도로를 따라 영화 「축제」 촬영지이자 일출 광경이 빼어난 소등섬을 지나 장항도를 일주하면 한적한 바닷가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장흥읍내로 진입하면 징검다리 사이로 다슬기가 살고 있는 장흥의 젓줄 탐진강이 반겨준다. 아름답리 능수버들과 연꽃 방죽이 조화로운 산책로를 걸어도 좋고 탐진강의 멋을 잘 살려준 커다란

징검다리 돌에 앉아 잠시 발 담그고 쉬어가도 좋다. 탐진강과 인접해 있는 토요시장에서 장흥의 대표특산물 표고와 키조개·한우를 곁들인 한우삼합도 먹어보고, 할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정남진 장흥의 봄은 할미꽃이 수줍게 고개 숙이며 봄바람을 맞이하는 한재공원에서 시작된다.

소설가 이청준님의 고향인 회진에 3만 평의 할미꽃 군락지에 꽃망울이 터지면 사진찍는 사람들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키가 너무 작아 조심히 살피지 않으면 밟을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움직여야 한다. 할미꽃이 지고 나면 하얀 솜털같은 뽕비가 은빛물결을 자랑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뽕비는 마치 구름속에 있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노력도에 가서 해양낚시를 즐기며 인생을 낚아도 좋고 매년 5월이면 제암산과 사자산에 있는 6km능선 야생 철쭉평원을 감상하러 제암산에 올라도 좋다.

장흥의 봄은 어느 곳을 가든 꽃이 만발하여 눈이 호강한다.

장흥의 여름은 살수대첩이다.

읍내를 가로 지르는 탐진강 전체가 특별한 물놀이 장으로 변신한다.

수상프로그램으로 우든보트, 수상자전거, 수중줄다리기,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가 있고 밤이면 옛날 감성을 그대로 살린 DJ의 맛

깔스런 음악소개를 들으며 물에 발담그고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별밤수다쟁이, 클럽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워터락 풀파티가 열려 젊은 청년들을 들뜨게 만든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하나되어 물총을 쏘는 물싸움 거리 퍼레이드는 축제를 알리는 서막이자 물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장흥댐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다슬기가 사는 1급 청정수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속에서 맘껏 뛰어 놀아도 탈이 없다.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을 꿈꾸었다면 지상최대의 물싸움이 시작되는 정남진 장흥으로 오시라.

물놀이를 지친 몸을 잠시 쉬고 싶을 땐 편백나무 빼곡한 우드랜드에 가서 힐링 타임을 가져보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분출되는 시기가 7,8월 한여름이니 말레길을 걸으며 온몸으로 스며드는 숲의 향기를 느끼는 장흥의 여름은 '건강'이다. 피톤치드를 내뿜는 4~5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이 들어서 있는 우드랜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게 무장애 데크길이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음이온폭포가 있는 말레길과 편백가루로 마치 스폰지를 밟는 듯한 톱밥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이 개운하게 치유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와 닿으며 자연스레 고개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효소찜질을 할 수 있는 편백소금집을 이용하여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들을 땀으로 속 빼주는 것도 추천해 주고 싶다.

기암괴석이 오묘한 형상을 빚어낸 천관산의 역세로 장흥의 가



을을 느낀다.

힘들지 않게 산 정상에 오르면 드넓은 평원에 하얀 물결이 춤을 추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호남 5대 명산 중의 하나인 천관산에 오르면 완도·고흥 소록도 뿐만 아니라, 멀리 제주도까지 보일 정도로 시원한 풍경이 그만이다. 산을 내려와 돌탑길이 정겨운 천관문학관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정남진 전망대에 올라 탁트인 득량만을 바라보면 목은 체증이 싹 가신다. 10층까지 고속 승강기로 올라갔다가 한층씩 걸어서 내려가는게 좋다. 각 층을 잇는 계단은 트릭아트, 장흥의 어제와 오늘, 향기계단 등으로 꾸며져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재미를 더한다.

고즈넉한 천년고찰 보림사에 살포시 눈이 내려 앉으면 고요한 풍경소리가 가슴에 닿는다. 야생 녹차밭에 내려앉은 눈과 비자나무의 조화가 평화롭고 아늑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누구든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장흥의 겨울은 평화와 안식이다.

계절마다 찾아가고픈 지역이 따로 있지만, 장흥은 언제 가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청자빛 바다와 산세 좋은 여러 산들과 드넓은 평야가 공존하는 곳,

이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정남진 장흥이다.

이처럼 평화롭고 살기좋은 고장에서 살아감에 행복을 느낀다.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이 보이듯 살기좋은 고장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장흥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장흥을 선택하고 살아감에 자긍심을 갖는다. 시골생활을 꿈꾸었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평화가 찾아왔을까? 망설이던 나를 이 곳으로 이끌어준 옆지기가 고마울 따름이다. 교통체증이 없는 짧은 퇴근 시간으로 이른 저녁을 먹고 탐진강을 두 손 잡고 산책하는 우리 부부의 여유로움을 도시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마음을 내려 놓으면 평화롭고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장려상

"아가 애기분유값해라잉"

박수정



해마다 봄이 오면 떠오르는 두 분이 계시니 따뜻한 미소와 자신의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다.

다른 사람들은 웬 시부모님? 할런지 모르지만 나에겐 그 그분들과 남모를 정이 가슴 속 깊이 담뱃 담겨 있다.

어쩌면 그분들 덕에 우리 가족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흥에 터전을 잡고 이나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에겐 정말이지 고마우신 분들이다.

외아들에 장손인 집에 시집 와보니 무슨 제사를 여덟 분이나 모시는지 참으로 의아했었다.

생각해보면 아버님께서는 부모님이시고, 조부모님이시니... 그것도 따로따로 정성껏 지내시던 시절이었으니 그도 그럴 수밖에.....

이제 모두 돌아가시고 내가 시집 온 지도 23년이 되어 1년에 한번 그분들을 추억하며 기리고 있다.

얼마 전 기일에 가족들과 옛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들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일밖에 모르시는 분이셨단다. 전형적인 농부... 그야말로 근면 성실의 표본이었지!

언제나 아침 손가락을 내려놓으면 바로 들에 나가셔서 점심때가 되셔야 들어오셔서 점심 드신 후 막걸리 한 잔, 또 지게에 삽과 낫을 들고 장화를 신고 나가셨지!

유일한 즐거움은 제육볶음에 막걸리 한 잔 드시는 거였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광주에 살 때 할아버지를 뵈러 장흥에 내려올 때면 꼭 돼지고기와 막걸리를 사왔었다.

옛그제 같다. 눈에 선해.....”

“그리고 너희들 아기 때 관산 본가에 내려올 때마다 광주로 올라가려면 할아버지께서 언제 준비하셨는지 이삼십 만 원씩 꼭 엄마 손에 쥐어주셨었지!”

“아가 애기 분유값 해라잉” 이제 갓 시작한 신접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되던지.....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자고 하면 신이 나더라? 우리가 준비해 온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그 정이... 아주 행복했단다. 그 누구보다도 자식을 생각하고 아껴주셨던 눈길에 애를 더 넣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배움은 짧았지만 자신의 도리에 충실하셨던 분이셨어. 아버지로써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셨지!”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 역시 글을 모르셨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 다녀와 인사드리러 왔던 날 밤에 할머니께서 아무도 모르게 꼬깃꼬깃 구겨진 수포 한 장을 몸뻐 바지 속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내가 너 그릇이라도 결혼선물로 사

줄락 했는디 어서 사야 이뻐고 좋은 것인지도 몰것고 니 맘에 안 들랑가 몰라서 이 돈으로 사라잉.”

“아가 니가 질 존 거로 사서 써라 잉. 나중에 내 생각함서 써... 내 며느리로 와줘서 고맙다.”

“절대 니 시누하고 서방한테 말하지 말고 남은 돈도 니가 딱 가꼬 필요항거 사서 쓰고 알것제?”

“나가 너므 밭에 날일 함시로 한 푼씩 번건디 우리 며느리 생기믄 줄라고 딱 저금해놔다가 한꺼번에 받아왔시아! 이거시라도 준게 내 맘이 좋다!” 하셨었지. 꼬깃꼬깃해진 그 수표가 100만 원이 었단다.”

감동의 눈물이 핑 돌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듬뿍 담은 돈이었어! 세상의 무엇보다도 큰 돈이었지. 세월이 흐른 후 엄마도 다짐했었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보며 ‘나도 꼭 이렇게 내 아이들에게 소소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줘야지’ 하고

“자녀들이 왜 부모를 보러 오지 않을까? 투정하는 것 보다는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배운 가정교육이란다.”

‘너희가 결혼해서 집에 왔을 때 챙겨주는 용돈,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올 때마다 분유 값 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집 만의 전통이자 문화로 너희에게 베풀고 싶어’ 마음속으로 아이들이 듣지 않게 되뇌이었다.

엄마가 느꼈던 몽클함을 느껴보렴! 하고 가족들과 막걸리 한잔 하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던 그날 밤은 아이 둘을 낳은 게 큰 행운이라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더 들어 나도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우리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가 엄마 아빠 이야기하며 이렇듯 추억하겠지 하고, 우리 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단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장흥에 내려와 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지.

어느 날 아빠는 일요일이라고 조기축구 나가셨고 엄마는 연년생 육아로 부족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직감적으로 좋지 않는 일이 있을 것 같이 사나운 벨소리였단다.

“할머니께서 고사리 꺾으러 산에 가셨는데 멧돼지인 줄 알고 누군가 총으로 잘못 쏘서 돌아가셨다고…….”

세상에나 어머니,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없었지. 이제 손주 재롱 보시고 즐거워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뉴스에도 보도 된 충격적인 일이었어.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알려주는 거란다.

“장례를 치르고 사태를 수습하고 결국엔 그 일로 우리 가족이 관산 집에 이사를 오게 되었단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장흥으로 내려온 가장 큰 계기가 되었지. 바로 혼자 되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어!”

“귀촌해서 처음엔 너희들을 초등학교까지만 키우고 다시 광주



로 올라가려 생각했는데 결국 장흥에 정착했다.

아빠 일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고 엄마도 다시 취업할 수 있었고, 살아보니 바다가 가까워 싱싱한 해산물도 많이 나오고 굳이 멀리 안 나가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여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딸기·토마토·표고·파프리카 등등 특용작물을 가꾸는 농부가 많아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싸게 바로바로 즐길 수가 있고, 한우 특구로 맛있는 한우를 먹을 수 있으니 물가 비싼 도시로 갈 필요성을 못 느꼈었지.”

“너희도 이제 대학생이고 직업을 찾아 언젠가는 도시로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장흥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유년시절의 추억을 간직하

고 살 수 있게 이 터전을 지켜나갈게!”

관산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지었던 집, 아빠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 너희 어릴 적 여름이면 인조풀장에 물 받아놓고 수영하며 모래놀이, 소꿉놀이 맘껏 뛰놀았던 마당이 있던 그곳도 지켜줄게!

장흥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너희들이 일상과 일에 지쳐 쉼이 필요할 때 항상 찾아와 쉴 수 있는 비밀 언덕, 힐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켄시아 같은 곳이 되어줄게! 다짐하며……

올해 시부모님 기일에는 아이들과 그분들을 추억하다보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장흥예찬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제 탐진강으로 산책이나 가볼까?”



장려상

장흥에 살아가보니
항상 감사합니다

김영금

장흥 ~ 긴 장에 흥할 흥이 장흥이라고 합니다.

그럴싸하다 그럴 것도 같다.

지형이 좋아서인가 풍수지리상으로 보아도 큰 바람도
막아주는 듯 한 산자락의 울타리가 있고

탐진강 물은 마르지 않고 깨끗하게 유유히 흐르고
어쩔 水有七德을 되새기며 살아가라는 듯
도도하지도 사납지도 않게 바람결에 따라 출렁출렁
물오리들도 그냥 둥둥 떠 즐기라도 하듯
잔잔한 물 흐름에 따라 흔들흔들 무리지어 떠 있는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을까지 평화로워지는 탐진강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조급하지 않고

유순하여 씹박질 큰 소리가 없고

바람, 물, 바다, 산 등이 잘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나오는 먹거리들을 우리도 같이 먹다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살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귀촌을 결단한 동기는 애들 결혼시켜 함께 살다보니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듯 싶기도 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기도 모른 척 하기도 하는 것이

내 자리가 어정쩡~ 그러다 내린 결단이 어느 시골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 찾아 노년의 동지를 만들자 하고,

그때까지의 나의 삶을 정리하며 애들 모르게

그냥 옷가지와 책만 가지고 친구 언니 따라

낯선 땅에 오고 보니 막연하기도 했지만

편하게 갈 곳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밤에 외롭고 무서우면 찬송 부르며

울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주님 은혜로 잘 견뎌 왔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올 때 우리 애들의 장애물이 되지 말자.

지네들도 나름대로 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엄마로 인해서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빠져 나가주자.

막연하게 시골 일도 못하면서 이런 저런 염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권유로

장흥 보건소 건강 대학이 있으니 다녀 보라길래.

입학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하여 다니다 보니,

친절한 보건소 담당자들의 권유대로

레크레이션도 봉사활동도 기공체도 우리 춤 체조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참가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배우고

소풍도 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이야기도 주고받다 알게 된 그분들

한 가정을 똑바로 세워놓고 늦게라도 용기 내어

나도 뭔가 배우겠다고 나온 그 마을의 유지 급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또 졸업과 동시에 지도자 교육도 받게 해주셔서
노인정 체조 위촉장도 받고, 기공 체조 위촉장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소득이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정 다니면서 굳어진 어른들의 마음도
녹여 드리려고 하면서 같이 체조하고 웃고 또 한때는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고 가르친다고 힘겨워
싸움닭도 됐을 법한 어른들이 기죽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 따라 가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기 보다 배우기도 하고 같이 푸념도 하고
같이 늙어가는 모습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늙으면 몸이 다 아픈 것도 어쩔 자식 정이며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날 준비시키는 과정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라도 좋은 말만 하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체조 끝나고 마지막 인사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자식들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입으로 만들어 봅시다.

나는 감사하게도 장흥에 와서
체조선생도 기공체조 선생도 자원봉사자도
또 보건소 건강대학 총 동문회 회장님도 되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날마다 잘 다듬어진 탐진강변 뱃나무들의 터널 길을
산책하고 강물에서 싱싱한 나무에서 뿜어낸 듯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고 강변운동기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몸 풀고 오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린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생활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노년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보내야 할까?
우리 애들의 등불이 돼 주고 싶다!

1. 건강이다. 건강해야 여유가 있어 주위가 사랑스럽다.
2. 감사다. 감사는 행복의 마중물이다 했다.
3. 水有七惠이다. 행하면서 복을 짓는 삶이다.

▽ 장흥삼합



△ 청태전



▽ 매생이



△ 표고버섯



수상자 명단

구분	읍면	성명	수기 제목
계		20명	
대상	용산면	엄승은	장흥이 겁나게 조아부요
최우수상	장흥읍	조영례	장흥에서 30년 살아본게 “자응사람 다 되부러쑈!”
	장흥읍	최현정	아이들에게 찾아 온 선물, 장흥
	유치면	양정임	인생의 끝자락에서 찾은 행복
우수상	장흥읍	함윤미	살아본게~ 내 마음의 정원! 장흥이 최고여라!
	유치면	황인화	일하며 배우며 사랑하며
	장흥읍	강윤희	어머니 같은 장흥에서 엄마로 사는 행복
	장흥읍	윤순정	장흥에서 잘 살아보드랑께~잉
	장흥읍	윤여미	오메 내 강아지!
	장흥읍	김여진	쌍콩이 아가씨에서 장흥댁으로 거듭나기
장려상	장흥읍	김미선	정감이 느껴지는 장흥살이
	장흥읍	위필수	고향에서 얻은 건강, 행복
	장흥읍	김건일	장흥, 둘이서 행복
	용산면	이소영	장흥? 장흥!!
	장흥읍	위삼석	내고장 장흥(長興)이 최고당께요~~
	회진면	이진영	시골은 밥이 짜다
	장흥읍	송지연	새내기 정착민의 씩씩한 장흥생활
	장흥읍	박미순	장흥의 사계절
	장흥읍	박수정	“아가 애기 분유값해라잉”
	장흥읍	김영금	장흥에 살아보니 항상 감사합니다



대상 수상자: 엄승은



2021 장흥살이 행복 수기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발 행 | 2021년 7월 30일

발행처 | 장 흥 군

기 획 | 장흥군 인구정책팀

인 쇄 | 도서출판 시와사람

주 소 | 광주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21-1(학동)

전 화 | (062)224-5319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연락처 : ☎ (061)860-5601

59328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인구정책팀